아산연 관아 복원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6. 10. 28.(금) 14:00
- 장 소 : 아산교육지원청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 일　　시: 2016. 10. 28.(금) 14:00 ~ 16:30
- ■ 장　　소: 아산교육지원청
-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 주　　제: 아산현 관아 복원 방안 모색

진 행 흐 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정책지원팀장 (입법정책담당관실)
14:05	14: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이기철 의원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토 론 회 > ※좌장: 이기철 의원	
14:10	14:30	20′	주 제 발 표 ‣ 김일환 / 순천향대학교 교수 ☞ 아산현 官衙 복원과 활용 방향	
14:30	15:45	75′	지 정 토 론 ‣ 황원갑 / 전)한국일보 기자 ‣ 이규영 / 전직 공무원 ‣ 박노숙 / 지역주민 ‣ 김회정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신홍철 / 온양신문 대표	토론자 전체 (각 15분)
15:45	16:05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6:05	16:20	15′	청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6:20	16:30	10′	정 리 및 폐 회	좌장(이기철의원)

목 차

■ 주제발표

☞ **아산현 官衙 복원과 활용방향** ····· 5
김일환(순천향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 복원** ····· 23
황원갑(전 한국일보 기자)

☞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활용 방안** ····· 33
이규영(전직 공무원)

☞ **나눔과 베품을 실천했던 토정 이지함** ····· 35
박노숙(지역주민)

☞ **조선시대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활용방안** ····· 53
김회정(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아산현 관아 복원 방안** ····· 71
신홍철(온양신문 대표)

주제발표

아산현 官衙 복원과 활용방향

김 일 환

(순천향대학교 교수)

아산현 官衙 복원과 활용방향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 일 환

1. 머리말

牙山縣은 아산만이란 천연의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高麗시대이래로 바닷길을 이용해 국가에 세곡을 납부하던 하양창이라는 조운창이 설치되어 서해안의 漕運과 物流의 거점지역이 되었다. 이 때문에 대몽항쟁기에는 몽골의 침략을 두 번이나 받았고, 고려 말에는 일본해적집단인 왜구의 잦은 약탈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아산만에 공세곶창[貢稅串倉]이 설치되고 주변에 많은 포구가 발달하였다. 이 때문에 魚鹽과 수산물이 집중하는 포구상업의 거점이 되어 상인과 인구가 집중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1] 따라서 국초부터 아산현은 倭船이 왕래하는 關門이고 租稅를 輸納하는 要地[2]라는 평가를 받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牙山 고을이 湖西의 要衝地에 있어 전쟁수행에 필요한 최고의 배후지로 인식되어 機務가 가장 긴요한 곳[3]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서해안 수로교통의 요지로 인정되었다.

그 외에도 아산현은 토정 이지함이 현감으로 재직 중에 自助形 복지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乞人廳'이라는 구빈시설을 운영하고 愛民사상을 실천하여 바람직한 목민관의 사표가 되었던 장소이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淸·日 양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격돌하여 청군과 일본군에게 아산현 관아가 차례로 점령된 어두운 수난의 역사현장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아산현은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

---

1) 成海應,『研經齋全集』「外集」卷64 雜記類 名塢志
牙山之貢稅倉村。在縣西十里靈仁山之下。山自東南趍西北。而素沙河(안성천)下流渟滀于前。曲橋大川由東南來。會于西北爲大湖。新昌諸山在湖南。水原諸山在湖北。交峙於水口如門。與德山由宮浦下流合。今公山屹然石也立中流(영웅바위)。如大舶掛帆。朝家置倉於靈仁山北之浦。收湖西近海諸邑賦稅。漕運京師。故名貢稅。湖地旣饒魚塩。又以倉故。人民稠而商賈至。多富厚家。山之腹背多名村。

2)『세조실록』33권, 세조 10년 4월 22일 갑진

3)『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21일 계유

스토리텔링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 뜻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요즈음 아산은 이전과 달리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이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충사와 외암리 민속마을을 제하면 딱히 내놓고 아산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대상과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상기한 역사적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아산현 관아를 복원하여 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과 명소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아산주민들에게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그 활용방향을 연구한 것이다.

2. 아산현의 설치와 官衙의 축조

1) 牙山縣의 설치와 변천

행정구역으로서의 아산현(牙山縣)의 시작은 삼국시대 백제의 牙述縣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면서 음봉(陰峰, 일명 陰芩)현으로 바뀌었다. 고려 초에 仁州로 고쳐졌고, 1018년(현종9) 천안부의 속현이 되었다. 1172년(명종2)에 牙州로 고치고 감무를 파견했다. 조선조인 1413년(태종13)에 이르러 牙山현으로 개명하고 현감(종6품)을 파견했다. 이후 아산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으나 아주현, 寧仁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아산현은 세조 5년에 일시 폐현되었으나 곧 복구되었고,[4] 연산군대 평택・직산・진천과 함께 경기도 관할로 변경되었다가[5] 중종반정 후에 다시 충청도 관할로 복구되었다.[6]

현재의 아산시 지역은 조선시대 아산현, 온양군, 신창현 3개 고을이 합쳐진 지역이다. 이 3개의 고을은 삼국시대부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고, 행정적으로도 별도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공통의

---

4) 이정주, 김구의 생애와 귀산 『김선생실기』의 성격,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조선초기 대표적 師儒, 歸山 金鉤, 『아산유학의 여러 모습』 지영사, 2010에 재수록)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유

5)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9일 壬午

6)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5일 辛巳

생활권에 속해 있어서, 고을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여 단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아산시가 위치한 충남 내포지역은 조선시대에 호서로 불리고 경기도와 구별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수로로 쉽게 연결되어 서울의 사대부들이 연고를 갖고 있는데다가 풍습도 서울과 비슷하여 경기 지방과 함께 기호 지방으로 불렸다. 조선시대 효종 대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이후부터 조선조가 멸망할 때까지, 노론 기호사림은 몇 번의 부침이 있었지만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따라 충청도는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반향(班鄕) 또는 유향(儒鄕)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이중환(李重煥)은 아산을 비롯한 가야산 인근 지역을 충청도에서 으뜸으로 꼽았다.

> 충청도는 ・・・ 산천이 평탄하고 아늑하며, 서울의 남쪽 가까이에 있다. 이에 사대부가 많이 살고, 서울의 세가(世家)치고 이 곳에 전택(田宅)을 두어 근본으로 삼지 않는 집이 없다.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충청도에서는 내포(內浦)가 으뜸이다.[7]

여기서 內浦지역은 아산의 삽교천을 기준으로 서쪽 가야산 주변의 10여 현을 비롯한 保寧・結城・海美・泰安・瑞山・沔川・唐津・洪州・德山·新昌을 말한다. 내포 지역 중 아산현은 아산만을 끼고 있고, 온양군과의 경계에 곡교천이 흐르고 있어 수로 교통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아산에 설치된 공세곶창[貢稅串倉]은 조선시대 조운체계에서 중시되었다.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공세곶창은 충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곡 수집처로서, 아산·온양·신창을 비롯하여 청주·목천·전의·연기·은진·연산·회덕·공주·정산·회인·천안·진잠·노성·문의 등 충청도 중부 18개 군현의 세곡이 집결되었다. 16세기 인조대에는 億萬庫라는 80칸 규모의 창고를 짓고 석성을 쌓는 등 공세창의 기능이 강화되었다.[8]

공세창 설치는 아산 지역이 충청도 중부 지역 물산의 집산지로 기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고장으로 알려졌다.

---

7) 李重煥, 『擇里志』, 忠淸道篇.
8) 『아산의 문화유적』, 30쪽.

> 나라에서는 영인산(靈仁山)의 북쪽 바닷가에다 창(倉)을 설치하고, 바다와 가까운 충청도 여러 고을의 조세를 거두어서 해마다 배에 실어 서울에 나르는 까닭으로, 이 호수를 공세호(貢稅湖)라 부른다. 이 지방에는 본래부터 생선과 소금이 넉넉했는데, 창을 설치한 후부터는 백성이 많이 모였고, 장사꾼도 모여들어서 부유한 집이 많다. 창(倉)이 있는 마을만 그러할 뿐 아니라 영인산맥이 두 갈래의 물 사이에 그쳐서 기맥이 풀어지지 않았으므로 산의 전후좌우가 모두 이름난 마을이며 사대부 집이 많다.[9]

이중환은 영인산 주변의 아산 지역이 경제적으로 풍족할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상으로도 吉地여서 名家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산을 길지로 여기는 인식은 16세기 후반 토정 土亭 李之菡이 아산현감 재직시 '100년 후에는 彌勒川(현재의 곡교천)이 조수로 범람할 것인데, 그 때는 반드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10]

19세기에 『신정牙州誌』를 편찬한 李浩彬은 아산 지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본현(필자: 아산현)의 사적을 총괄하여 말하면, 역사에 기록된 충신이 4명이요, 가요에 오른 효자가 5명이요, 鄕賢으로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 3이요, 문단에서 8대 문장가가 나란히 있으니 '文物之鄕'으로 일컬을 만하다.[11]

조선 후기에 간행된 각종 『읍지』에는 아산·온양·신창 3개 고을의 풍속이 순후하고 질박하며, 당파 간의 알력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은 충신·효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문장가와 학자를 배출한 '문물지향'으로 알려져 있었다. 성종 대 문장가로 알려진 李承召(1422-1484)는 아산은 옛부터 명승지이며 풍속이 순박하고 文風은 '鄒魯之鄕'과 같다고 읊었다.

---

9) 李重煥, 앞의 책.
10) 「牙州誌」, 『邑誌』 7, 110쪽.
11) 위의 책, 115쪽.

아산현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1914년 지방행정구역 재편에 의해 아산, 온양, 신창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행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시군통합으로 단일지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2) 아산현 관아의 축조와 시설

고려 현종대 監務의 설치로 아산지역의 상설관아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산현의 관아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문헌 기록은 조선 태종대에 나타난다. 鄭以吾의 「牙山縣慮民樓記」를 보면 1413년(태종13)에 새로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崔安正이 아산백성을 모아 자재를 수집하고 기와를 구워 客舍의 꺾이고 썩은 것을 바꾸고 굳고 흐리고 분명치 않은 데는 선명하게 만들었다. 또한 學堂을 보수, 건립하여 자제들이 공부에 힘쓰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에서 고려 이래로 아산현 관아가 존재했으며 조선 태종대에 아산현감이 된 최안정이 보수하였고 鄕校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慮民樓는 이 무렵에 처음 건축되는데, 객사의 동쪽에 추가로 樓觀을 지으며 河崙의 의견을 따라 명명하였다한다.[12]

이 당시 아산현 관아가 있던 장소가 현재 아산의 어느 곳인지는 명확치 않다. 왜냐하면 세조 5년에 아산현 폐현을 주장하는 충청관찰사 黃孝源은

> 신이 아산(牙山)의 아전을 보건대, 모두 속임수를 써서 수령(守令)을 모해(謀害)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관사(官舍)가 허물어지고 좁고 더러운데도 재목(材木)의 산지(産地)에서 멀어 영건(營建)할 길이 없고, 그 기지(基地)가 큰물에 세차게 충격(衝激)하여 장차 가라앉을 형세입니다.[13]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사실로 보면 아산현 관아가 바다와 가까운 장소에 있어 潮水가 자주 침범하여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장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아산이 삽교 방조제와 아산만 방조제가 축조되어 조수의 피해를 입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세종대부터 조선후기까지 潮水의 범람으로 수해를 입어 농사를 망친 사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14]

---

12) 鄭以吾, 『郊隱先生文集』 下 「牙山縣慮民樓記」
13)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3일 병오

3) 아산현 관아의 이건과 변천

조선후기에 편찬된 아산현 읍지인 『신정아주지』에는 원래 아산현 관아가 지금 관아 터에서 동쪽으로 2리 정도에 있었고 토정 이지함이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음을 알리는 기사가 있다. [15] 향교도 이전에 縣의 동쪽에 있었는데 토정이 현감 재임중인 이전하여 개건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16] 하지만 관아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설명이 없다. 다만 조수에 의한 빈번한 침습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짐작된다. 구전에 의하면 원래의 관아 터는 현재 성내리 2구 안골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현재도 옛 건물의 주춧돌, 기와 조각이 남아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음봉고을의 터라고 전해오며, 한편으로는 황촌부곡 터라고도 한다.[17]

토정에 의해 이전될 당시의 아산현 관아가 어떤 모습인지는 기록이 없어 확실치 않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을 겪으며 아산현 관아가 현저히 파괴되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아산현관아가 증축된 것은 임진왜란이후 거의 80여년이 지난 숙종대에 기록이 나타난다. 1682년(숙종8)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산현감으로 있던 宋炳夏가 재임 중에 近民堂이라는 堂號를 가진 東軒을 건축하였다.[18]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개축이 아닐까 생각된다. 동헌인 근민당 남쪽에는 觀湖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1717년경 아산현감이던 李泰鎭이 지었다.[19]

아산현은 1813년(순조13)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헌이 燒盡되었다.[20] 이때

---

14)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18일 을미
『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9월 11일 무신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8월 4일 병신
洪淸道 牙山、新昌、德山、天安、平澤等邑海溢, 濱海堤堰, 無不墊沒,

15) 李浩彬, 『新定牙州誌』, 館舍(奎 17384)
衙官舊在縣東二里知縣李之菡移構于此 閱武堂 官廳 鄕廳 椽廳 軍官廳 客館在衙舍東北

16) 李浩彬, 『新定牙州誌』, 學校(奎 17384)
鄕校在官南二里 舊在縣東 萬曆庚戌知縣李土亭之菡移建于此
그러나 1610년(광해군2)에 토정 이지함이 현재의 자리로 이건했다는 기록은 사실에 맞지 않다. 토정은 1578년에 아산에서 순직했기 때문이다.

17) 온양문화원, 『온양아산 마을사』 2권, 2001, 304쪽

18) 1683년(숙종9) 3월 2일에 송병하를 파출함.

19)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4월 13일 정유 1717년, 『승정원일기』 경종 1년 10월 10일 정묘 1721년 숙종43 4월13일 이태진을 아산현감에 임명. 27일 하직 경종1년1721 10월 10일까지도 현감 재직.

20) 윤경렬은 1812년(순조12) 11월 5일부터 1814년(순조14) 5월23일에 보은군수로 전출될 때까지 아산현감으로 재직하였다.

아산현감 尹慶烈이 충청감영에 보고하여 재목을 모아서 중건하고 기문을 지어 揭板하고 당호는 '近民堂'이라고 改號하였다.[21]

관아 건물의 구성을 보면 1757년(영조33)에서 1765년 사이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가 편찬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牙山 公廨條에는

衙舍 58間 客舍 30間 武學堂 5間 觀湖亭 3間 慮民樓 今廢[22]

라고 하여 아사와 객사, 무학당, 관호정이란 이름이 官衙에 있고 조선 초부터 존재하던 여민루는 今廢라하여 영조년간에 사라지고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태종대부터 존재하던 여민루가 사라진 시기가 토정이 아산현 관아를 이건할 때인지, 아니면 정유재란기 인지, 아니면 또 후대 어느 시점인지는 추정키 어렵다. 이후 1819년에 편찬된 『신정아주지』에도 여전히 여민루가 옛날에 객관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고 遺趾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점으로 보아 이 무렵까지도 여민루는 재건축되지 않고 그 터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871년 편찬된 『호서읍지』 牙山條에는 여민루가 衙舍 앞에 있으며 정이오의 기문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관아 정문인 門樓에 여민루라는 현판이 걸린 모습이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재 여민루에는 현판에 "甲午榴夏知縣書"라는 글귀가 있다. '갑오년 음력5월에 현감이 썼다'는 말인데 현감의 성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조선후기에 갑오년은 1654년(효종5), 1714년(숙종40), 1774년(영조50), 1834년(순조34,헌종즉위년. 아산현감 金鎭華), 1894년(고종31, 아산현감 鄭寅鎭, 梁在謇)이 있다. 1871년 『호서읍지』까지는 여민루가 폐지되고 유지만 남았다는 사실로 보면 현판이 쓰여진 해는 1834년 아니면 1894년으로 압축된다. 그중에도 1894년은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아산에서 청일전쟁이 터진 해여서 현감이 도망하는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시기여서 여민루를 중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834년이 가장 유력하며 당시 현감은 金鎭華였는데, 이것과 연관되는지는 몰라도 현감 김진화를 기념하는 「縣監金鎭華愛民善政碑」가 성내리 1구에 있다.[23]

---

21)『新定牙州誌』館舍
22)『輿地圖書』上 忠淸道 牙山 公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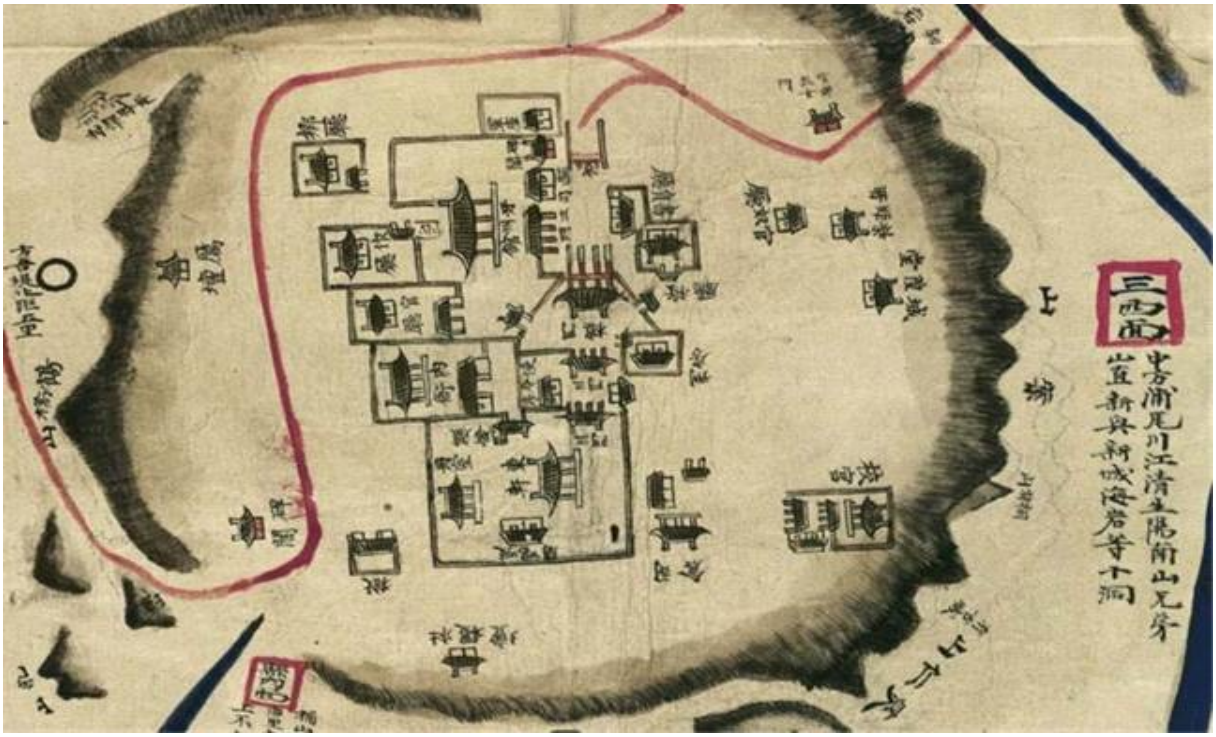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것은 지금의 여민루가 태종대 이래 존재하던 여민루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여민루 현판이 붙어있는 건물은 정확히 말하면 門樓이다. 관아를 들어가는 정문인 것이다. 문루는 이층다락형태의 건물로 어느 관아이던 형태가 비슷하다. 따라서 문루의 현판은 온양현의 관아에 '溫州衙門'이라는 현판에서 보듯 지역명을 넣어 아문을 알리는 '○○아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루에 거는 현판을 '○○樓'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牙州衙門'이나 '牙山衙門'이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현재의 여민루는 본래의 여민루가 사라진 후 중건하지 않고 관아의 정문인 문루에 현판만 1834년에 아산현감 金鎭華가 써서 게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관아의 건물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819년에 편찬된 『신정아주지』의 관사조에는 衙舍(옛날에는 본 현의 동쪽 2리에 있었는데 지현 이지함이 이곳에 옮겨지었다), 閱武堂, 官廳, 鄕廳, 椽廳,[24] 軍官廳, 客館(衙舍의 동북쪽에 있다) 등이 나타난다. 1871년에 발간된 『호서읍지』의 아산편은 전체적으로 『신정아주지』를 필사한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과 항목을 비교해 보면 1819년 『신정아주지』와 내용상의 차이가 약간 있다. 그것은 1819년부터 1871년 사이에 변화된 아산의 지역상황을 수정하여 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호서읍지』에서는 아산현 관아가 衙舍(옛날에는 본 현의 동쪽 2리에 있었는데 지현 이지함이 이곳에 옮겨지었다), 縣司, 椽廳, 鄕廳, 軍官廳, 秋廳, 官廳, 柴炬廳, 客館(衙舍의 동북쪽에 있다), 慮民樓(衙舍 앞에 있다. 정이오의 기문이 있다) 등으로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관아건물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확대된 관아의 모습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1872년 아산현 지방지도에 수록된 것이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872년 지방지도 아산현 지도에는 건물배치와 함께 건물명이 더욱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체적인 건물배치가 완전히 확인 가능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하

23) 온양문화원, 『온양아산 마을사』 2권, 2001, 305-306쪽
24) 秩廳(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고 지방관아에서 가장 중요한 客舍의 명칭이 '牙州館'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客舍, 혹은 客館은 서울에서 파견되어 관아를 방문하는 國王使臣의 숙소 건물이지만 국왕을 상징하는 殿牌, 闕牌가 봉안되어 수령이 망궐례를 행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관아 중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25]



<그림 1> 1872년 아산현 지방지도

<그림 2> 청일전쟁기 객사인 牙州館에 주둔한 일본군을 그린 삽화

25) 안길정,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 상, 사계절, 2000, 105-143쪽

3. 걸인청의 축조문제

아산현 관아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건물은 “乞人廳”이다. 걸인청은 1578년 토정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부임하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로 언급되고 있다. 걸인청의 설치유무와 아산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기사와 같이 『宣祖修正實錄』의 이지함 卒記에 나온다.

말년에 牙山郡에 부임하여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의 정치는 백성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서 해를 없애고 폐단을 제거하며 **한창 시설을 갖추어나갔는데** 갑자기 병으로 졸하니, 고을 사람들은 친척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였다.

末年赴牙山爲政, 其治以愛民爲主, 除害祛弊, **方有施設,** 遽以病卒, 邑人悲之, 如喪親戚[26]

위 실록기록은 토정 이지함이 사망한 지 68년이 지난 후인 1646년(인조24)에 기존의 『宣祖實錄』을 수정하면서 새로 첨부된 사실이다. 여기서 **‘한창 시설을 갖추어나갔는데’**라는 부분에서 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빈민을 위한 구빈시설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토정 이지함이 아산 현감시설에 아산현에 구빈시설을 설치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현재까지 걸인청 설치와 관련된 자료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지함의 『土亭遺稿』에 나오는 「出或人記事」가 최초의 기록이다. 다음은 「出或人記事」에 나오는 구빈시설 관련 내용이다.

“선생은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며 다 헤진 옷에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 이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큰집을 짓고** 거처하도록 하고, 수공업을 가르쳤다. 사농공고(士農工賈) 가운데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설득한 다음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귀에다 대고 일일

26) 『선조수정실록』 12권, 선조 11년 7월 1일 경술
1641년(인조19) 2월에 대제학 李植의 상소로 수정을 결의하고, 이식에게 수정을 전담시켰다. 이식이 수정을 시작한 것은 2년 뒤인 1643년(인조21)부터이다. 1646년(인조24) 1월에 이식이 다른 일로 파면되고, 곧 사망하여 수정 사업은 중단되었다. 1657년(효종8) 3월에 이르러 수정실록청을 다시 설치하고 領敦寧府事 金堉과 蔡裕後 등으로 하여금 계속 사업을 펴게 해 그 해 9월에 완성을 보았다. 이 수정실록은 1년을 1권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총 4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조 즉위년부터 29년까지의 30권은 이식이 편찬했고, 30년부터 41년까지의 12권은 채유후 등이 편찬하였다.

이 타일러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각자 그 의식(衣食)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에게는 볏짚을 주어서 짚신을 삼도록 했다. 몸소 그 작업의 결과를 따져서 하루에 열 켤레를 만들어내면 짚신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했다. 하루의 작업으로 한 말의 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이익을 헤아려서 옷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하자 두어 달 동안에 사람들의 의식(衣食)이 모두 넉넉해졌다."

先生哀流民敝衣乞食 **爲作巨室以舘之 誨之以手業** 於士農工賈無不面喩耳提 各周其衣食 而其中最無能者 與之禾藁使作芒鞋 親董其役 一日能成十對 販之市 一日之工無不辦一斗米 推其剩以成衣 數月之間 衣食俱足 而不勝其苦 多有不告而遁者 以此觀之 盖見生民因惰而飢 雖疲癃百無一能 而未有不自爲芒鞋者 先生之示民近效 妙矣哉.[27]

그러나 위 기사는 지금까지 「出或人記事」라고 해서 이 기사의 발설자가 누구인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가 분명치 않아 토정의 구빈시설 설치에 대한 실체와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컸다. 그런데 이 기사는 유명 文人이며 정치가로 조선시대 선조대에서 인조대에 걸쳐 벼슬한 柳夢寅(1559 ~ 1623)의 『於于野談』에 나오는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토정유고』에서 말하는 或人은 바로 유몽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은 『於于野談』에 나오는 土亭관련 기사이다.

"이지함은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며 다 헤진 옷에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 이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큰 움막을 짓고** 거처하도록 하고, 수공업을 가르쳤다. 사농공상(士農工商) 가운데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설득한 다음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귀에다 대고 일일이 타일러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각자 그 의식(衣食)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에게는 볏짚을 주어서 짚신을 삼도록 했다. 몸소 그 작업의 결과를 따져서 하루에 열 켤레를 만들어내면 짚신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했다. 하루의 작업으로 한 말의 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이익을 헤아려서 옷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하자 두어 달 동안에 사람들의 의식(衣食)이 모두 넉넉해졌다."

27) 柳夢寅,『於于野談』卷2

李之菡哀流民敝衣乞食 <u>爲飢民作巨竇以舘之 誨之以手業</u> 於士農工賈無不面諭耳提 各資其衣食 而其中最無罷者 與禾藁使作芒鞋 親課其役 一日能成十對 鞋販之市 一日之工無不辦一斗米 推其利以成衣 數月之間 衣食俱足 而不勝其苦 多有不告而遁者 以此觀之 益見民生因惰而飢 雖疲癃百無一能 而未有不自爲芒鞋者 之菡之示民近效 妙矣哉.[28]

상기한 두 개의 사실자료를 비교해 보면 소위 걸인청과 관련되는 최초의 언급은 유몽인의 『於于野談』[29]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몽인이 20세가 될 때 토정이 별세했다. 유몽인은 정치적으로 토정의 조카인 李山海와 함께 北人의 핵심인물이었다. 북인세력은 광해군대 집권세력이었는데 유몽인은 광해군에 의한 인목대비의 유폐를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칩거 중에 인조반정이 터졌고, 유몽인의 아들이 광해군 복위운동에 참여하다 발각되자 여기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유몽인은 오랫동안 신원되지 못하고 역적으로 취급되다가 1794년(정조18)에 와서야 관작이 회복되고 신원되었다.[30] 따라서 1652년(효종3)에 간행된 『土亭遺稿』에서 공식적으로 유몽인의 성명을 밝히고, 그의 글을 인용할 수 없어 「出或人記事」라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걸인청에 대한 최초의 발설자인 유몽인이 토정과 동시대를 살았고 이산해를 통해 토정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언급한 걸인청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실재했음을 인정해도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 토정이 빈민구제시설을 설치하며 그 청사를 "乞人廳"으로 명명했는가하는 점은 매우 회의적이다. 현재 조선정부가 간행한 각종 관찬사서나 토정의 문집, 동료학자, 門人들의 어느 글에도 "乞人廳"이란 용어는 없다. 물론 더 조사해 보아야 하지만 아마도 근대, 혹은 해방이후에 누군가에 의해 작명된 造語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소위 '걸인청'이 실재했다면 현재 아산현 관아의 어느 장소에 위

28) 柳夢寅, 『於于野談』 卷2

29) 5권 1책. 활판본. 당초 10여 권이었으나, 저자가 모반의 혐의로 刑死됨에 따라 많이 산질되었다. 1832년(순조 32) 『於于集』을 발간하면서 종후손 금(琴)이 『於于野談』의 유고를 수집하여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에도 줄곧 필사본으로 전하여 왔는데, 필사의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抄寫本이 나타났다. 1964년 그의 종후손 濟漢이 가전의 잔존본에 여러 이본을 수집, 보충하고 부문별로 나누어 5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책머리에는 유몽인의 영정과 遺墨, 이어 柳永善의 서문, 成汝學의 舊序文(1621)과 연보를 실었다. 책 끝에 종후손 제한의 발문이 붙어 있다.

30)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5월 12일 무술

치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아산현 관아의 실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1872년 지방도의 아산현지도이다. 이 지도는 19세기 후반의 아산현 관아의 위치와 건물배치, 건물명을 자세히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 아산현 관아를 복원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할 자료이다. 하지만 토정 사후 3백여 년이 지난 뒤의 아산현관아의 모습이라 이 지도를 바탕으로 토정시대의 아산현 관아를 추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토정이 설사 '걸인청'이란 시설을 설치했어도 토정 사후에 후대까지 계속 걸인청이 존치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 토정 사후에 임진왜란과 같은 대전란이 아산을 휩쓸었뿐 아니라, 누대에 걸쳐 관아건물이 새롭게 증축되고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존하는 특정 건물을 걸인청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재 아산현 관아의 일부였던 부속건물을 걸인청이라는 지칭하는 속설[31]이 있지만 이 건물은 1872년 아산현 지방도에는 '書員廳'으로 표시되어 있다.[32] 이 서원청은 발표자의 추측으로는 19세기에 와서 지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건물이 이전의 걸인청이라는 것은 문헌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현재 이 건물은 소멸된 것이 아니고 1997년에 향교 옆으로 이건하여 향교의 관리사로 쓰이고 있다.[33]

마지막으로 소위 걸인청의 모습과 크기는 어떠했을까? 유몽인이 언급한 사료에는 토정이 빈민을 위해 "巨竇"를 지었다고 했다. '竇'는 움집을 뜻한다. 이 말이 사실에 근사하다면 걸인청은 큰 규모의 움집 형태로 지어졌고 초가지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土亭遺稿』에는 이 말을 바꾸어 "巨室"로 표기되어 있다. 어떤 말이 사실에 근사한 지는 현재 論하기 쉽지 않다.

4.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활용방안

아산현 관아의 복원문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여러 근거에 따라 아산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과 명소로 개발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1) 황원갑, 『歷史人物紀行』, 한국일보사, 1988, 156-169쪽
32) 書員廳은 관아 입구에 설치되어 수세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으나 점차 상설 기구화 되었다,
33) 영인향토지편찬위원회, 『牙山靈仁鄉土誌』, 2005, 179쪽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이 관아의 복원이 실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관아복원의 타당성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관광자원으로서 관아복원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밀도 있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영인면 주민과 충분한 협의여부이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바꾸는 문제로서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다대하므로 가부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청의 전체 복원은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관아 전체를 복원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복원을 한다면 동헌과 객사, 걸인청 등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인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원이후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건물 복원 자체로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복원한다면 이 관아를 어떻게 활용하여 기대하는 목적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문화적인 소프트웨어 확보문제라 할 수 있는데, 실례로 걸인청과 객사를 이용하여 토정선생의 애민사상과 목민관의 자세를 교육하고 배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청일전쟁과 같은 외세의 침략 현장이라는 역사성을 어떻게 구성하여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무원, 일반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질 좋은 학습장이 될 소프트웨어개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관아는 아산의 역사를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는 야외박물관 또는 체험학습장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아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 체험공간도 필요하다.

5. 맺음말

아산현 관아복원 문제는 빈약한 아산의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새로운 볼거리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선행해야만 한다. 또 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공세곶창의 복원사업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관아복원을 통한 공간 활용을 위해 토정 이지함의 애민사상과 목민관 정신을 교육하는 산교육장으로 사용한다던지, 청일전쟁의 발발지로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현장임을 이해시키는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 아산만 포구상업문화의 내용과 의미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영인산을 둘러싼 영인산 문화밸트를 설정하여 영인산 주변에 존재하는 풍부한 스토리텔링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문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 복원** ····· 23
황원갑(전 한국일보 기자)

☞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활용 방안** ····· 33
이규영(전직 공무원)

☞ **나눔과 베품을 실천했던 토정 이지함** ····· 35
박노숙(지역주민)

☞ **조선시대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활용 방안** ····· 53
김회정(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아산현 관아 복원 방안** ····· 71
신홍철(온양신문 대표)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 복원

전 한국일보 기자 **황 원 갑**

충남 아산시 영인면은 토정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재직할 당시 아산현 관아 소재지였다. 영인면사무소 앞뜰에는 1997년 12월 23일에 세운 토정 이지함의 동상이 있고, 그 뒤쪽에는 토정의 선정을 기리는 영모비가 있다. 또 영인초등학교 입구에는 토정 당시 아산현 관아 정문이었던 여민루가, 여민루에서 마을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토정이 이전한 아산향교가 있다.

하지만 토정이 구세제민의 경륜을 펼치던 걸인청 건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으나 이제는 사라져버려 영영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런데 이제 걸인청을 포함하여 아산현 관아를 복원할 예정이라니 토정 이지함의 유적을 답사 취재하고 그의 일대기를 썼던 필자로서는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

[198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걸인청 건물]

아산현 관아와 걸인청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향토사를 기념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후세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국내는 물론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1982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고, 한국일보사 기자로 2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 서울경제신문 문화부장으로 끝으로 기자 생활을 접고 현재는 역사소설을 쓰고 있다.

필자가 토정 이지함의 일대기를 쓴 것은 1987년이었다. 당시 한국일보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매월 역사인물 일대기를 연재하던 중 토정 이지함 편을 쓰기 위해 그의 출생지인 보령에서 현감으로 재직하다가 운명한 아산까지 답사 취재를 했던 것이다.

토정 이지함의 발자취를 찾아 현장답사 취재에 나서기 전에 <토정유고>, <선조실록>, <율곡전서>, <연려실기술>, <대동야승> 등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근래에 나온 토정 관련 기록들을 힘닿는 대로 찾아보았으나 걸인청을 세웠다는 말만 있지 그 다음에 어찌되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또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한산이씨대종회를 찾았을 때도 듣지 못했으며, 당시 온양시에 있던 아산군청에서 <아산군지>를 얻어 살펴보아도 그런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아산군 문화공보실의 협조로 차를 빌려 영인면 아산리로 달려갔다. 미리 연락한 아산향교 박영래 전교를 만나 걸인청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내를 받아 아산면사무소 앞에서 똑바로 500미터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니 고색창연한 옛 관아 정문인 여민루가 영인초등학교 담장과 붙어 서 있었다. 또 여민루 바로 앞 길가 오른쪽에 낡디낡은 기와지붕을 얹은 길쭉한 일자기와집이 옛 걸인청이라고 알려주었다. 박 전교는 지금은 여염집이 되어 지붕만 가까스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인면 아산리 424번지의 3호. 목조 25평짜리 기와집이 걸인청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년 뒤 온양시가 없어지고 아산군과 합쳐 아산시가 된 뒤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낡았지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걸인청 건물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렇게도 옛 전통과 문화를 지키지 못하니 무슨 발전이 있으랴싶어 한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걸인청을 비롯하여 옛 아산현 관아를 복원할 작정이라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본명보다도 <토정비결>의 작가로 더 잘 알려진 토정 이지함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비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간 기인이사였다.

'재물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이 따르는 법' 이라면서 한평생 청빈무욕하게 보낸 선현 중의 한 분이 토정 이지함이었다, 그는 유학(儒學)은 말할 것도 없고 천문 · 지리 · 음률 · 산술 · 의술 · 점복 · 관상 등 여러 방면에서 비상한 재주를 지녔으나 박학다식을 뽐내지도 않았고 벼슬자리를 탐내지도 않았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지 · 기행으로 한 삶을 일관한 토정은 먼 앞날을 미리 내다본 비범한 예언가요 서민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시대를 훨씬 앞서간 실학사상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만년의 짧은 관직생활을 통해서는 오로지 구세제민의 경륜을 펼친 청백리이기도 했다. 평생토록 가난을 재미삼아 살아왔으므로 종6품에 불과한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을 잠깐씩 맡았던 것도 결코 재물이 탐나거나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위해 남은 힘이나마 한번 쏟아보고 가겠다는 순수한 인간애 · 동포애의 발로였을 것이다.

토정 이지함의 본관은 한산(韓山).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6세손으로 중종 12년(1517) 음력 9월 20일 수원판관을 지낸 이치(李穉)와 부인 광산 김씨(光山金氏)의 막내아들로 외가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에서 태어났다.

위로는 지영(之英) · 지번(之蕃) · 지무(之茂) 세 형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둘째형 지번한테 글을 배웠다. 뒷날 영의정에 오른 이산해(李山海)의 부친인 지번은 글뿐 아니라 토정의 인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는 유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에도 정통했으며, 명종 때 벼슬을 버리고 충북 단양군 구담에 은둔하며 신선술에 몰두했다. 늘 털이 검은 소를 타고 강변을 돌아다녔으며, 구담 양쪽 절벽에 칡덩굴로 밧줄을 만들어 가로질러 놓고 거기에 오늘날 케이블카와 비슷한 '비학(飛鶴)' 을 매달아 타고 오르내렸으므로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토정의 풍류정신과 실용주의 사상은 이런 둘째형의 감화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형 밑에서 자란 토정은 정종(定宗)의 증손인 이성랑의 딸과 혼례를 올렸는데, 한강변에 진흙을 개어 10여 척 높이의 흙집을 짓고 살았다. 밤에는 그 속에서 자고 낮에는 집 위에 올라가 한강을 오르내리는 돛배들을 바라보거나 <주역>을 읽으며 지내니 그 집을 가리켜 사람들이 흙으로 지은 정자, 즉 '토정'이라고 불렀고 자신도 또한 그것을 아호로 삼았다. 그 토정이 바로 지금 서울 마포구 토정동의 지명이 되었다.

토정이 그렇게 하기 싫던 벼슬길에 나선 것은 56세 되던 해인 선조 6년(1573) 봄. 포천현감이 되어서였다. 이미 마음속으로 작정한 바가 있었으므로 토정은 일부러 남루를 걸치고 짚신 신고 죽장 짚고 걸어서 포천에 부임했다.

마침 저녁때였으므로 관노가 음식을 차려서 올렸다. 토정이 물끄러미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먹을 것이 없구나."

아전이 뜰아래서 이 말을 듣고 몸 둘 바를 몰라 이렇게 아뢰었다.

"궁벽한 시골이라 변변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차려 올리겠습니다."

아전은 진수성찬을 차려 다시 올렸다. 토정이 여전히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똑같은 말을 했다.

"먹을 것이 없구나."

육방관속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며 지은 죄도 없는데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속으로는 된통 까다로운 사또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잘 차린 음식을 보고도 먹을 것이 없다니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재물을 긁어모으려는 탐관오리로 오해했던 것이다. 이윽고 토정이 입을 열어 이렇게 타일렀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한데도 음식에 절제가 없고, 또 앉아서 편히 먹기를 좋아하니 큰일이다. 나로 말하자면 음식을 상에다 차려서 먹는 것조차도 과분하게 여기는 바이니라."

그리고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만 내오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토정 이지함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잘살기운동 · 새생활운동 · 새마을운동을 실천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대선배였던 셈이다. 토정이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걸인청(乞人廳)'을 세운 것은 아산현감 때였으나 포천현감 시절에도 그와 비슷한 집을 지어 빈민들을 거두어 각자 생업을 주선하여 새 삶을 열어주었다고 전한다. 그는 포천현감으로 부임한 이듬해에 백성을 위한 건의를 했으나 조정에서 받아주지 않자 미련 없이 현감 직을 내버리고 훌쩍 떠나버렸다.

그가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선조 11년(1578)이었다. 토정은 고을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뜻밖에도 거지가 매우 많은데 놀랐다. 거지뿐 아니라 늙고 병들어 벌이도 못한 채 겨우 목숨만 이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걸인청이었다. 그러자 아전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반대를 했다.

"사또! 거지새끼들은 모조리 쓸어다가 아산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데 무슨 까닭에 걸인청을 만들어 우리 고을을 거지소굴로 만들려고 하십니까요?"

토정이 목청을 가다듬어 아전들을 꾸짖었다.

"어허, 고얀 놈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것이 수령의 본분이 아니더냐? 내가 걸인청을 세우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여 양민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집과 땅을 갖게 하여 잘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건물이 없다느니 재물이 없다느니 핑계를 대지만 건물은 세미(稅米)창고를 비워서 수리하면 될 것이고 재물은 한 해 동안만 먹여주면 자립할 방도가 마련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걸인청을 만든 토정은 관속을 풀어 고을 안의 거지들을 죄다 잡아들여 수용하고 일을 시켰다. 노약자와 병자들은 짚신을 삼거나 새끼를 꼬는 쉬운 일을 시켰고, 젊고 튼튼한 거지들은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거나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시켰다. 그 밖에 손재주가 좋은 자들에게는 도구를 마련해주고 수공업에 종사토록 했으니, 이야말로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는 산 교훈에 다름 아니었다.

토정은 어디에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만사 제쳐놓고 찾아가 만났는데,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남명(南冥) 조식(曺植), 우계(牛溪) 성혼(成渾), 율곡(栗谷) 이이(李珥) 등과의 교유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박현석의 <사우록(師友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토정이 젊었을 때 화담 서경덕의 학식이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배우고자 송도(개성)로 찾아갔다. 낮에는 화담에게 글을 배우고 밤에는 객사에서 잤다. 객사의 바깥주인은 행상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젊고 예뻤다.

어느 날 안주인이 서방더러 장사 나가기를 권했다. 지아비가 행상을 떠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누라가 전에 없이 아양을 떨며 장삿길을 재촉한 것이 수상쩍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멀리 떠난 척하고 마을을 빠져나온 다음 그날 밤 몰래 집으로 돌아가 바깥에 숨어 동정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여우같은 여편네가 짐작했던 대로 토정의 침소에 들어가 갖은 교태를 부리며 열심히 꼬리를 치고 있었다. 서방이 일이 어찌 되는가 지켜보자 토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바로 갖추고는 엄숙하게 남녀가 유별한 인륜도덕을 깨우쳐주는 것이었다. 온갖 교태로 아양을 떨던 마누라가 마침내 부끄러움에 못 이겨 잘못을 빌었다. 이런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서방은 단숨에 화담에게 달려가 말했다.

“소인의 집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사온데 참으로 괴이합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감히 아룁니다.”

화담이 그 말을 듣고 객사로 찾아가보니 과연 사내의 말이 틀림없었다. 탄복한 화담이 빙안으로 들어가 토정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학업과 수양은 이미 내가 가르칠 경지를 넘어섰구려! 원컨대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화담은 토정보다 28세 연상인데, 그때 혹시나 자신이 그 옛날 명기 황진이(黃眞伊)로부터 유혹을 당했던 사건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

흔히 알기를 풍류남아라고 하면 가무음주를 즐기고 여색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기 십상이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토정이야 말로 풍류에 통달했으면서도 여색만은 경계하여 마지않은 훌륭한 인격자였다. 그는 조카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늘 이렇게 말하며 여색을 멀리하라고 타일렀다.

“이것(여색)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어느 해 제주도에 건너갔을 때였다. 제주목사가 토정의 명성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객사에 모시고 환대한 뒤 이렇게 시험해 보았다. 관기(官妓) 가운데서 가장 예쁜 기생을 불러 이렇게 시켰다.

“얘야, 네가 만약 오늘 밤 저 선생을 함락시키기만 한다면 큰 상을 내릴 터이니라.”

그날 밤 그 기생이 토정의 침소에 들어가 온갖 교태와 아양을 떨고 나중에는 홀랑 벗은 알몸으로 육탄공세를 퍼부었지만 토정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다름없었다.

남명과의 만남도 비상했다. 토정이 처음으로 남명을 찾아가니 16세 연상인 남명이 뜰아래까지 내려와 반겨 맞으며 대접이 극진했다. 당황한 토정이 말했다.

“존장께서 어찌 일개 야인에 불과한 후배를 이토록 후대하십니까?”

남명이 웃으며 대답했다.

“범상치 않은 그대의 풍모를 보고 내 어찌 천하에 명성 높은 토정을 몰라보리오?”

그 뒤 남명이 서울에 왔다가 하인에게 술과 안주를 들려 한강변 토정의 집 토정으로 찾아왔다. 토정이 의관을 갖추고 토굴 같은 토정 안으로 남명을 맞아들였다.

“존장께서 이처럼 누추한 데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지나던 길에 들른 것이외다. 술과 안주는 내가 장만해왔으니 상이나 봐오소!”

그리하여 두 풍류고사가 마주앉아 권하고 마시면서 고금의 일화부터 학문과 시사(時事)에 이르기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날 토정의 학식과 인품을 눈여겨보고 탄복한 남명이 이르기를 “그대야말로 도연명(陶淵明)에 못지않은 고매한 선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그 옛날 풍류군자들의 멋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토정은 남루를 걸치고 삿갓 쓰고 죽장 짚고 팔도강산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런 차림새로 주유하고 당대의 내로라하는 고관대작과 명사들을 만나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었다.

토정의 풍모를 전해주는 기록이 <혹인기사(惑人記事)>라는 책에 나온다. '선생은 키가 보통사람보다 훨씬 컸고 골격도 건장했다. 또 얼굴이 검으면서도 둥글고 살집이 좋았다. 발 길이는 한 자가 거의 다 되었으며, 목소리 또한 맑고 우렁찼다. 말수가 적었으며 기개가 당당했고 위풍이 늠름했다.' 이 책은 또, 토정이 늘 저자와 산수 간을 돌아다니다가 잠이 오면 두 손으로 지팡이에 의지해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인 채 잠이 드는데, 코고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소나 말도 놀라 도망치기 일쑤였다고 전한다.

그렇게 한세상을 떠돌며 토정은 풍류사에 길이 남을 숱한 전설적 일화를 남겼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는 '쇠갓'을 만들어 쓰고 다닌 일일 것이다. 관례(冠禮) 이후 수십 년간 쓰고 다니던 갓이 망가져버렸는데 선비로서 의관이 없으면 바깥출입을 못하던 당시로서는 큰일이었다. 그런데 낡을 대로 낡아버린 밥솥까지 구멍이 뚫려 더는 못쓰게 되어버렸다. 궁리를 거듭하던 토정은 마침내 기발한 착상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바로 쇠갓이었다.

쇠로 갓을 만들었으니 낡아서 버릴 염려도 없고 뒤집어 놓으면 밥솥도 되니 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일화는 토정의 기인다움도 돋보이게 하거니와 그가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던가를 분명히 반증해준다고 하겠다. 장대한 체격의 사내가 보기에도 괴상한 쇠갓을 쓰고 다니니 그는 이내 서울의 명물로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토정의 부인 전주 이씨는 끼니때마다 '움직이는 밥솥'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

이처럼 토정은 청빈무욕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상인이 가장 천대받던 시대에 그는 이미 상업과 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본보기삼아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떼돈을 번적도 있었다. 언젠가는 조각배를 타고 무인도에 들어가 박을 심어서 수만 개의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수천 석의 곡식을 사서 빈민들을 구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는 쌀 한 됫박 들여놓지 않으니 부인이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었다.

토정의 문집인 <토정집>에 이런 글이 있다.

'재물은 본래 흉물이 아니지만 나라의 재앙이 흔히 재물에서 비롯되

고, 권세도 본디 흉물이 아니건만 벼슬아치들의 재앙이 흔히 권세에서 비롯된다.'

또 이런 구절도 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원(願)이 있으니 안으로는 신령스럽고 강하기를 원하고, 밖으로는 부귀를 원한다. 하지만 귀하기는 벼슬하지 않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부하기는 욕심내지 않는 것만큼 부함이 없다. 또한 강하기는 다투지 않는 것보다 강한 것이 없고, 신령스럽기는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신령스러운 것은 없다.'

토정은 풍류사였을 뿐만 아니라 앞날을 미리 내다볼 줄 안 도통한 예언가이기도 했다. 서산대사(西山大師) · 이율곡(李栗谷) · 이순신(李舜臣) 등과 더불어 토정도 임진왜란을 예측한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또 사람의 안색과 음성만으로도 그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토정은 또한 풍류객답게 음률에도 정통했고 특히 거문고를 잘 탔는데 그의 둘째 아들 산휘(山輝) 역시 지음(知音)의 기재(奇才)였다고 전한다.

율곡이 <경연일기> 선조 11년(1578) 7월조에 이렇게 썼다. '아산현감 이지함이 죽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욕심이 없고 인색함을 몰랐다. 기질을 이상하게 타고나 추위 · 더위 · 굶주림 · 갈증을 잘 참았다. 어떤 때는 알몸으로 거센 바람을 맞았고, 또는 열흘을 음식 한번 먹지 않아도 병들지 않았다. 천성이 효성과 우애가 깊었고 재물을 가볍게 여겨 남의 급한 사정을 잘 도왔다….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두 백성을 사랑하기를 위주로 하니 백성 모두가 그를 흠모했으나 갑자기 이질을 앓아 세상을 버렸다. 나이 62세였다.'

1578년 음력 7월 17일 일세의 풍류기재 토정 이지함이 아산현감 자리에서 세상을 뜨자 수많은 고을 백성이 길을 메우고 마치 부모상을 당한 듯 애통해했다.

토정의 묘소는 서해의 낙조가 내려다보이는 충남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 국수봉 기슭에 있다.

토정은 죽기 전에 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한다.

"여보,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면 다시는 사람들 신수를 봐줄 수가 없겠구려?"

부인의 말에 토정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뭐 천기(天機)를 알아서 신수를 봤는가? 사람들이 하도 졸라서 그렇게 저렇게 봐준 거지.”

“그럼 앞일도 모르시면서 사람들을 속였단 말씀이세요?”

“사실 속인 것도 아닐세. 사람들은 내가 봐주지 않으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라도 기어코 봐야만 속이 시원하게 마련이거든.”

이 이야기에 덧붙인다. <토정비결>이 과연 토정 이지함의 저작이 맞을까 하는 물음이다. 세상사람 대부분은 지금도 이지함이 <토정비결>의 작자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토정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잡술서를 지었을 리는 없고, 그저 후세의 어떤 호사가가 지어놓고서 예언가로 유명한 토정의 이름을 도용했을 것으로 본다.

토정 이지함, 그는 우리 역사를 빛낸 비상한 기인이재였다.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활용 방안

전직 공무원 **이 규 영**

아산현은 일찍이 수로교통의 발달로 왜선이 왕래하는 관문이고 조세를 수납 관리하는 요지로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어 이웃국가들과의 크고 작은 분쟁과 침략으로 수난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며,

또한 탁상을 떠나 발로 현장을 답사하며 애민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청렴을 생활화한 목민관의 표상인 토정 이지함 현감이 재직한 관아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발전의 효시와 선진국 문턱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민적 청렴성 확보가 긴요한 시점에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토정 이지함 현감의 빛나는 업적과 정신을 다시금 조명할 수 있도록 토론과 지혜를 결집하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한다.

아산현은 아산시의 근원지이며 근대와 현대 행정의 전환점으로 복원과 함께 아산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를 조성하여 기존의 현충사, 외암 민속마을, 맹사성고택, 차별화된 온천, 영인산 휴양림 등과 함께 관광문화의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 아산현 관아 복원의 선결과제

· 아산현 복원시 관아위치와 규모 등이 자료 어느 곳에도 확실한 고증이 없고 전체 복원 시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전국적 유사관아가 400여개 이상 보편적으로 산재되어 차별화된 논리가 필요한 것으로 봄

① 차후 확실한 고증(아산현, 걸인청 등)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② 많은 재정 수요를 감안해 상징성이 높고 시급한 시설부터 순차적 추진이 필요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청복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어진 목민관의 표상인 토정 이지함 현감을 테마로 한 걸인청 운영과 토정비결 등을 소재로 영인산과 연계된 일정한 공간에 역사 문화 재현단지를 조성한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③ 복원된 시설을 청소년, 공무원, 역사 탐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역사문화 콘텐츠개발, 전시공간, 체험장 등으로 병행하는 방법은 어떤지?

나눔과 베품을 실천했던 토정 이지함

지역주민 **박 노 숙**

종교인 김수환 추기경님과 법정스님은 평생을 “나눔과 베품”으로 살아온 분들이라면 아산골 사또 토정선생님도 한평생 “나눔과 베품”으로 살아 오셨다.

이 나라 온 국민으로부터 추앙(推仰:높이 받들어 사모함)을 받아온 정신적 대통령은 추기경님과 법정스님이다.

위 세분 중 어느 분이 가장 높은 벼슬을 하셨을까?

전국에 있는 성당을 잘 다스린 김수환 추기경님의 벼슬이 가장 높은 벼슬이다. 다음은 현재 아산시의 삼분의 일 토막을 다스린 사또 토정의 벼슬이다. 처자식이 없어 가장(家長: 집안어른)벼슬도 하지 못한 어른은 법정스님이시다. 고대 광실(高臺廣室:좋은집)에서 사신 어른은 어느 분일까? 고대광실은 뼈대 있는 집이다. 오대산자락 오두막집은 손목 굵기의 구불구불한 나무기둥이며 대들보에 지팡이 같은 석가래 위에 초가지붕이다. 집주인은 정신적 대통령 법정스님이셨다.

현재 서울 마포구 한강 뚝방에 흙으로 지은 집은 토정(土亭)으로 뼈대 없는 집 주인은 호가 토정이요 성과 이름은 이지함이다. 토정네 집에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보따리가 있어 풀어헤치면 좔좔 쏟아진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정승판서인 고관대작과 이름난 학자들뿐만 아니라 착하디착한 백성들과 거지떼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어 뼈대없는 집 앞에는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정신적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을 땅 한평 없이 가난뱅이로 사시었다. 정리하면 뼈대 있는 집이 부자집이라면 뼈대 없는 집은 보통집이요, 집도 절도 없는 집은 가난뱅이 집이다.

명동성당 주변은 6.25때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었다면 명동성당은 벽돌 한장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명동성당은 명당(明堂)가운데 으뜸 “터”로서 그곳에서 꽁자로 사시었으나 무병장수하시어 90세를 훨씬 넘기셨다. 다음 뼈대 있는 집터도 명당이라 법정스님도 90세를 넘기셨다.

뼈대없는 집터주인 토정선생도 60세로 돌아가셨으니 요즈음 나이로는 80세까지 사셨으니 뼈대 없는 집터도 명당터 인가보다.

정신적 대통령추기경님이 타시는 자가용은 소나 타고 다니는 차로 고장이 잦은 구형 소나타였다. 법정스님의 자가용은 한번 밟으면, 높은 언덕위에 있는 오두막집까지 쏜 화살처럼 달린다. 토정선생이 살았던 시절에는 띠띠빵빵이 없어 항공모함 크기의 짚신 두짝에 몸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 아니가 본데가 없었다. 토정은 배모는 솜씨가 뛰어나 바다에 사는 수선(水仙)이라 했다. 수선은 신선(神仙)인지라 바람을 이용하면 운전하면서 가고 싶은 데를 다 갈수 있다. 먼 바다에 있는 제주도와 서해, 남해, 동해바다를 자원 탐사(探査)를 위해 아니가 본데가 없었다. 바다와 육지의 자원탐사는 착하디 착한 백성들의 먹거리 탐사였다.

《나눔과 베품》

나눔과 베품의 원조(元祖:뿌리)는 누구일까?

반만년 우리 역사를 살펴보니 그 뿌리는 아산골 토정 이지함이다. 토정은 영인초등학교 울타리에 있는 여민루(濾民樓)근처에 비어있는 창고에 걸인청(乞人廳)이라는 간판을 직접 써서 달고 스스로 청장(廳長)님이 되어 거지들을 모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었다. 그 당시 아산골은 전국에서 거지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토정의 어린 시절은 보령 바닷가에서 살았다. 썰물때 구럭을 매고가서 해초(海草)나물, 톳, 곰피와 어패류(魚貝類)망둥어, 게, 대합, 바지락, 굴 등을 망태기(구럭)에 그들먹하게 채웠다. 바닷물이 쭉 빠졌을때 갯벌에서 갯고랑으로 쭈르륵 미끄럼을 타니 두눈만 빠꼼이 나왔을 뿐 온몸이 개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여자들이 즐겨하는 머드팩이다. 머드팩의 효과로 토정선생은 윤기가 넘치는 반질반질한 피부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난한 집 싸리문을 지그시 열고 안에 망테기를 넣은 후 살며시 문을 닫았다. 주인은 다음날을 위하여 빈구럭을 싸리문 밖에 내다 걸었다 다음날 개구장이 토정은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영양탱크 망태기는 가난한 집을 골라 돌림뱅이를 했다. 그러나 외가집은 영양탱크를 전하지 않았다. 그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집인지라 끼니때마다 진수성찬이었다. 개구장이의 바닷가 생활은 최초의 나눔과 베품이었다.

토정은 성년이 되자 쌀 한말밥을 뚝딱 해치우고 걸어서 한양땅 형 이지번(李芝番)집으로 갔다. 토정은 형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혼처가 있어 어른이 될려고 결혼했다.

한산(韓山)이씨 지함은 전주이씨 왕족(2대 정종) 모산수(毛山守) 이정랑의 딸과 결혼했다.

색시집은 부자집으로 값이 엄청 비싼 중국산 비단으로 지은바지, 저고리, 조끼와 도포 말꼬리털로 짠 말총갓, 그리고 짐승가죽으로 지은 짖신까지 덤으로 신을 수 있으니 떡거머리 총각은 신바람이 났다. 떡거머리 총각은 남에게 자랑거리가 없었다. 장가들자 자랑거리가 생긴 새 신랑은 설(雪)울 "눈울타리" 안동네 구석구석 싸다녔다.

어느 날 홍제동 다리 밑을 지날때 굶주려 다 죽어가는 거지떼를 만났다. 이주머니 저주머니 뒤져보았으나 땡전 한푼도 안 나왔다. "나눔과 베품"을 할려고 비단도포를 벗어 주었다. 수십명의 거지떼를 살리려고 비단 바지저고리도 벗어주려고 하였으나, 팬티를 안입은 상태라 털렁털렁이 보일 것 같아 꾹 참고 말았다. 새신랑이 대문안에 들어서자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털렁털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다.

신부인 전주이씨는 새신랑 하는 짓이 꼬라지가 어지러워 본체만체하고 신경을 꺼 버렸다. 떡거머리 총각때는 행동이 자유로웠으나 떡거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상투를 틀어 올렸으니 도포를 걸치지 않고는 대문밖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몇날 몇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기도 어려운데 보름이 지나자 새신랑은 구석에 틀어박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았다. 대낮에 코를 고니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장날 신부는 친정엄마가 준 용돈 땡전 한푼을 가지고 저자거리로 갔다. 가장 비싼 옷감이 중국산 비단이라면 가장 싸구려 옷감은 엉근 삼베였다. 도포감 엉근 삼베를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아흔아홉쪼가리로 가위로 싹뚝싹뚝 잘랐다. 아흔아홉쪼가리 도포를 지으니 누더기 도포가 되었다. 신라시대 거문고 음악가는 백결(百結)선생이라면 조선시대 아흔아홉결 거문고음악가는 토정 이지함선생 이시다. 엉근 삼베도포 1벌로 수십년을 입으니 군데 군데 구멍이 나서 기워입으니 수백결(數百結)선생이 되었으니 백결선생을 만나면 백결선생은 부끄러워 도망치기 바뻣다.

1573년 토정이 56세때 포천 현감으로 부임 했다. 죽장을 짚고 엉근삼베 도포를 입고 방갓을 쓰고 헌 짚신을 신고 걸어서 부임했다. 마침 저녁때이므로 관청노비가 저녁상을 올렸다. 물끄럼이 저녁상을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먹을 것이 없구나” 아전이 뜰아래에서 이 말을 듣고 몸둘바를 몰라 이렇게 아뢰었다? “궁벽한 산골이라 변변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차려 올리겠습니다” 아전은 진수성찬을 다시차려 올렸다. 토정이 여전히 밥상을 내려보더니 똑같은 말을 했다. “먹을 것이 없구나” 육방관속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며 지은죄도 없는데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속으로는 된통 까다로운 사또를 만났구나하고 생각했다. 잘 차린 음식상을 보고도 먹을 것이 없다니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재물을 긁어모으려는 탐관오리로 오해 했던 것이다. 이윽고 토정이 입을 열어 이렇게 타일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음식에 절제가 없고 또 앉아서 편히 먹기를 좋아하니 큰일이다. 나로 말하자면 음식을 상에다 차려서 먹는 것조차도 과분하게 여기는 바이니라” 그런 다음에 잡곡밥과 나물국 한그릇만 내오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이것하나만 보아도 토정 사또는 선정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토정이 포천현에 있을때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을 요약하면 3대 부고론(府庫論)은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 그중에 하책(下策)은 땅과 바다에 널려있는 자원개발을 금지 할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상소문에 대한 답이 없자 토정사또는 헌신짝 버리듯이 현감직을 팽겨치고 말았다. 그리고 땅과 바다의 자원 탐사에 나선 것이다.

탐사 중에 저자거리에서 십여명의 거지떼를 만났다. 그들을 조용한곳에 불러 모아놓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거지 한녀석이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해서 먹고살지요 했다 그러자 토정은 짚토매 한단씩을 나누어주고 토정도 한토매를 가지고 자 이제부터 나를 따라 하시게하고 짚의 검불을 추렸다. 짚토매가 반토매로 부피가 확 줄었다.토정이 왕알기 새끼를 꼬자 따라서 했다. 그 다음에 짚신을 삼으니 열대여섯 켤레를 삼았으나, 토정이 삼은 짚신을 빼고 엉망진창이었다.

두번째 삼은 짚신은 서너켤레는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이다. 세번째는 열켤레는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이다. 열번째는 전부합하여 120켤레가 합격인지라 토정이 짚신 꾸러미를 메고 시장에 나가 팔았더니 소머리와 쌀 두어 되박을 사가지고 왔다. 쇠갓을 벗어 쇠머리를 삼고 뼈를 추려낸후 씻은 쌀을 넣고 소머리국밥을 각자 거지들이 수저로 퍼먹으니 맛이 좋아서 띵호와였다.

토정이 동냥해서 먹는 음식이 맛있냐 일해서 먹는 소머리국밥이 맛있느냐고 묻자. 거지들은 다 같이 소머리국밥이 맛이 좋아서 짱이라고 했다. 이것이 노하우가 되어서 아산골 걸인청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어느길을 택했을까?

식솔들과 책 보따리를 가지고 아산임지로 올 경우 수선(水仙)은 뱃길을 택했을 것이다. 토정 별장에서 자가용인 일엽편주로 한강에서 서해바다를 통해 공진창에서 하선하였을 것이다.

혼자 올 경우 동작(銅雀)나루(노량진)를 건너 과천으로 해서 지지대 고개를 넘어 수원과 오산을 거쳐 진위현(진위역)에서 1박하고 국도인 천안삼거리로 가지 않고 지방도인 평택현(팽성면 객사리)에서 둔포, 쇠재, 붉은고개(역리) 여민루를 통하여 등청(登廳)하였을 것이다. 둔포에서 백석포 신운리로 오는 길은 구도(舊道)가 아니며 자동차 교통 때문에 새로 생긴 신작로(新作路)이다.

토정은 상서원(尙瑞院)에서 마패를 발급받아 영인면 역리에 있었던 장시역(長時驛)으로 올수 있었으나 걸어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천 현감으로 갈때도 역마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갔기 때문이다.

마패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1박2일 코스를 걸어서 임지로 부임했다면 이 또한 “토정다운” 면모(面貌)임을 알 수 있다.

아산골 현청 정문인 여민루(濾民累)를 토정이 지나치려고 하자 문지기 수문장(守門將)이 가로 막았다. 그러자 토정은 이놈! 썩 비키거라, 본관은 새로 부임하는 신관 사또이니라.

문지기는 참으로 웃기는 놈이네 누덕누덕 기운 엉근 삼베도포를 입은 신관사또도 있다더냐 아산골은 거지들의 소굴이다. 너 같은 의관을 하고 다니는 거지새끼는 한 놈도 없다. 이 관청은 동냥을 얻기 위해 거렁뱅이들이 드나

드는 곳이 아니니 썩 물러 가거라 하며 문지기는 오히려 호통쳤다. 나는 수문장을 수십년 하면서 많은 신관 사또를 맞이했다.
신관 사또는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앞에서 마부가 말을 끌고 뒤에는 등짐을진 하인 놈이 쫄랑쫄랑 따라 붙는다고 했다.
문전박대를 당한 토정은 배낭에서 임명장인 교지(敎旨)를 꺼내 문지기에게 보여 주었다. 까막눈 문지기가 보더니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이고 빨간 것은 도장 찍은 것이라 하면서 문을 닫고 빗장을 탈카닥 걸어 잠군다음 이방한테 가서 문밖에 커다란 거지 놈이 와서 신관사또라고 뻥치고 있으니 어찌 하오리까. 곤장을 쳐서 내 쫓겠다고 아뢰었다.
듣고 있던 이방(吏房)은 낌새가 이상하여 헐레벌떡 여인루(廬民樓)문으로 뛰어가 "댁은 뉘시우" 하고 묻자 토정은 교지를 보여 주었다. 교지를 보자마자 이방은 땅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싸싹 빌었다. 토정이 "어서 일어나시게 하자" 이방은 신관(新官)사또를 뫼시고 동헌(東軒)으로 갔다.
토정이 거인(巨人)이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터이라 몸에 맞게 큼지막한 관복을 지어 놓았다. 비단으로 지은 새 관복으로 갈아입고 의자에 텁썩앉으니 의자는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덕 으지직 하면서 부서져 버리자 신관사또는 나뒹굴어 떨어졌다. 이를 본 육방관속들은 달려들어 신관 사또를 부추겨 일으켜 드리고 죽을죄를 이었다고 또다시 백배 사죄(死罪)했다. 듣고 있던 토정은 "이놈의 의자가 사람 잡는군" 하면서 껄껄껄 웃어 넘겼다. 이방은 급히 목수(木手)들을 불러 밤을 새워 원두막같이 큼지막하고 튼튼한 의자를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동헌으로 출근한 신관 사또는 원두막 의자에 앉으면서 의자는 이처럼 큼지막하고 소가 밟아도 꿈쩍 않는 의자라야 마음 놓고 집무(執務)를 볼 수 있다고 육방관속들을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육방관속들을 모아놓고 몇 마디 훈시를 하였다. 새로 지은 관복을 입고 큼직한 의자에 앉아 위풍늠름(威風凜凜)하고 굵직한 목소리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부 영웅호걸의 모습이었다. 누덕누덕 꿰맨 옷을 입었을 때는 문지기한테 거렁뱅이 취급을 받았으나 비단으로 지은 관복으로 갈아입자 영웅호걸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옷은 날개라고 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은 토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토정사또는 관복에 어울리는 신발은 소가죽으로 지은 짖신을 신었을 것이다.
신발은 만든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볏짚으로 삼은 신발은 짚신이요 왕골, 삼을 섞어 삼은 신발은 미투리이다. 짚신이 저급 신발이라면 미투리는 고급 신발이다. 미투리는 양반이나 부녀자들이 신는다면 짚신은 농부, 장인, 장사치 그리고 상놈들이 신는 싸구려 신발이다. 나무로 만들면 나막신이요 비단으로 만들면 비단신이다. 고무로 만들면 고무신이요 짐승가죽으로 만들면 짖신이라 했다. 고무장화처럼 목이 긴 신발은 화(靴)라 했고 짚신과 미투리처럼 목이 없는 신발은 이(履)라 했다.
아산골에 부임한 사또 토정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산책겸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읍내(邑內:현재 아산리)를 걷다가 거지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술집역시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다시 한 번 놀랬다.
자그마한 고을에 기생집이 열다섯집 주모(酒母)가 운영하는 술집이 서른집 합해서 마흔다섯 집이 술장사로 번창(繁昌)했다.
전임 사또 탐관오리 윤춘수의 실정(失政)도 있었지만 먹자판의 아산골 경제에서 거지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갑자기 “불이야”하는 소리와 함께 아산골에서 제일 큰 기생집이 불이 났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웃에 불이나면 예나 지금이나 집집마다 바가지, 물동이, 물지게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퍼 나르는 것이 이웃인심(人心)이다.
이상하게도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팔짱만 끼고 불구경을 끝까지 했다. “기생집이 이웃들한테 실인심(失人心)을 하였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다. 또한 알몸으로 “사람 살려요” 하고 불속에서 튀어 나오는 남녀가 있었으니 구경치고는 제대로 된 불구경을 공짜로 한 셈이다.
홀랑 벗고 불속에서 튀어나온 여자는 그 집에서 제일가는 기생 매월(梅月)이었다.
옆에 있던 늙은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거리 조차 없어 굶다시피 하는 이웃들은 산해진미(山海珍味)를 요리하는 음식냄새에 참을 수 없을 더러 밤새도록 울어대는 풍악소리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서방들 역시 집에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틈만나면 기생집에 틀어 박혀 살다시피 하니 아낙네들의 불만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소방 책임관 사또 토정은 불구경을 끝까지 한 후 관아 숙소에 가서 푹자고 다음날 아침 동헌(東軒)으로 출근 했다.
“사또! 어제밤 화재는 단순한 실화(失火)가 아니라 방화(放火)임이 밝혀졌읍니다요” 라고 형방(刑房)이 사또에게 와서 아뢰었다.
그렇다면 방화범은 잡았느냐?
“예 무지(無知)한 여편네가 서방이 바람피우고 돌아오지 않자 그만 자기 서방과 놀아나는 기생에게 앙심을 품고 그렇게 불을 지른 것입니다요”
그렇다면 “그 여인을 대령(待令)토록하라” 고 토정이 명령했다.
형방은 “여봐라 불을 지른 여인을 대령하랍신다.” 라고 나졸들에게 소리쳤다. 곧이어 나졸들이 한 젊은 여인을 포승(捕繩)으로 꽁꽁 묶어 끌고 왔다.
“고개를 들라!”
토정이 동헌 뜨락 원두막의자에 앉아 위엄 있는 소리로 말했다.
“네가 기생집에 불을 지른 것이 사실이냐?” 고 물었다. 여인은 한참 있다가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 무엇이라는 말이냐?” 토정이 다그쳤다.
“그리고 제가 잡히지 않았다면 아산골의 기생집을 모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 여인은 말하는 것이었다.
“어허 망칙한 것! 투기(妬忌)가 너무 심하구나” .
토정이 혀를 끌끌 찼다.
“사또! 그것은 투기가 아니옵니다. 저희 집만 해도 팔십노모가 병환으로 누워계신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밤낮 기생집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집으로 찾아가면 기생집 심부름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대문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사또! 나라 안팎이 평인하지 못하고 춘궁기(春窮期)로 이곳저곳에서 굶어죽는 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인데 어찌 이런 망칙스러운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연야(連日連夜)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은 심사는 저같은 계집만이 아니고 지아비를 두고 있는 모든 여인네들이 한결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옵니다. 저야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사또 어른께서는 이런 병폐(病弊)를 살피시어 척결(剔抉)해 주옵소서 “.
여인의 말은 아주 조리(條理)있고 진실 된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감히 여인의 말에 이의(異意)를 들고 나서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과연 우리가 저 여자만도 못했구나.” 하고 자괴(自塊:스스로 무너짐)할 뿐이었다. 곡간에 쌀이라도 있는 집의 사내라면 의례 기생집에서 세월을 보내고 특히 노모가 병환으로 위독해도 나 몰라라 하고 돌봐주지도 않는 남편 그 남편의 타락(墮落) 현장을 목격(目擊)하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봉변(逢變:남에게 욕을 봄)만 당해야 했던 여인의 마음.....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 기생집에 불을 지른 어쩔 수 없는 분노, 토정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래도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겼던 토정은 “여봐라” 하고 목청을 돋은 후 “이 여인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곤장 20대라는 말에 형방(刑房:법을 다루는 아전)도 놀랬고 주위 관속들도 모두 놀라 수군거렸다. 형방(중앙에는 6조(曹)가 있으니 지방에는 6방(房)이 있었다)은 사또가 법을 몰라 그렇게 하였나 싶어 “사또 곤장 20대라니요? 그건.....” 하고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자 토정은 “알고 있다 자네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곤장 20대로 충분하니 어서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고 명령했다.

여인은 감복(感服)해서 그만 울음을 터트렸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토정의 판결에 대한 진의(眞意)를 알고 모두들 명판결(名判決)이라 흐뭇해하였다.
왜 주위 사람들이 흐뭇해 했을까? 그 명판결은 그 당시 아산골 백성들의 정서(情緖)에 합당한 결과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후 토정은 이방(異邦)을 불러 “이방은 기생 명부를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방이 가져온 기적(妓籍)에는 열명도 채안되는 기생만이 정식으로 올라 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아산골에 득실거리는 기생들은 거의가 다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토정은 “자 지금부터 샅샅이 기생집을 뒤져 기적에 없는 기생들은

모두 아산골에서 쫓아내라 기생이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기생 명부에서 제적(除籍)시켜 쫓아내야한다” 고 엄명을 내렸다.
“타락(墮落)되어 가는 아산골” 은 토정의 단호한 결단으로 질서가 잡히고 풍기(風紀)도 정화(淨化)되어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당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寄與)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화범은 20대의 볼기를 맞는 대가로 아산골의 득실거리던 기생골이 토정 사또에 의해 깨끗이 척결 되었다.
하루는 부자가 가난한 농부를 끌고 동헌(東軒)에 나타났다.
“사또! 이 도둑놈을 처벌해 주세요.”
부자는 헐레벌떡 숨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무순 도적질을 했길래 그렇게 숨가뿐 소리를 하는고?”
라고 토정이 물었다.
“아, 글쎄 이놈이 기르는 소가 우리 집 배추밭에 들어와서 배추를 모두 뜯어 먹었지 뭡니까요?”
“그뿐인고?”
“예 그것 뿐입니다요?”
“그래 얼마나 뜯어 먹었는고?”
“한 50포기는 족히 될 것입니다요”
토정은 그말에 “그래 그까짓 오십포기 없어졌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단 말인가?” 하고 역정(逆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서 잃어버린 배추를 찾아야 합니까요?”
그래서 배추 값을 물어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끼니도 못때우는 판에 물어낼 돈은 없고 가을에 품삯일로 때우겠다는 것입니다요 그러니 도둑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읍니까요?
부자가 말하고 있는 동안 가난한 농부는 벌벌 떨고 있었다.
토정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그래 잃어버린 배추를 꼭 찾아야겠는가?” 고 물었다.
부자는 “아무렴요. 배추가 안되면 그대신 그놈의 소를 제가 차지해야죠.” 라고 대답 했다. 토정은 “자네말도 옳아,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배

추를 찾게 해 주지.” 라고 했다. 그러자 부자는 손뼉을 치며 “사또어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농부는 더욱 기가 죽어 얼굴이 창백(蒼白)해졌다.
토정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 그러면 이 농부의 소를 끌어 오너라” 하고 명령했다. 부자는 이제 소를 차지하게 되나보다 하고 더욱 즐거운 얼굴이었으며 가난한 농부는 그의 전재산인 소를 빼앗기게 되나 싶어 더욱 초조했다. 얼마후 가난한 농부가 소가 나졸(羅卒:관아에 속한 쫄다구니 사령)들에 의해 동헌으로 끌려왔다.
소는 영문도 모르고 큰 눈을 껌벅이며 되새김질(반추)을 계속할 뿐이었다.
“분부대로 소를 끌고 왔습니다요.”
나졸이 아뢰었다. 그러자 토정은 부자를 향해
“여보게 자네집 배추는 저 소 뱃속에 들어 있을 테니 배를 가르고 모두 찾아가게”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점잖게 듣고 있던 가난한 농부가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가 죽고 맙니다요” 하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토정은 할수 없다는 듯 “잃은 물건을 찾아야지 자 저자(者)에게 칼을 갔다 주거라.” 하고 명령했다. 토정이 시키는 대로 나졸이 칼을 가져다 부자 손에 쥐어 주었다.
“자 어서 소의 배를 가르게.” 토정이 명령했다. 그 순간 토정이 잠시 멈추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소의 배를 갈라 배추만 꺼내고 소는 그대로 살려야 하네.”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부자가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요? 배를 가르는데 어찌 소가 다시 살아 날수 있습니까?” 하고 부자가 말하자 토정은 “살릴 수 없다면 배추를 찾을수 없네. 자네는 어디까지나 배추가 목적이 아니지 않는가? 자네는 배추를 찾는척하다 어물쩡하게 소를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인데 그건 있을 수 없네. 자 어서 소의 배를 갈라 배추를 찾고 소를 살려 놓던지 아니면 소 값을 물어주게.” 하고 재촉했다. 이 말에 부자는 슬그머니 쥐고 있던 칼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러자 가난한 농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숨처럼 아끼던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토정은 어디까지나 가난한 사람들 편이었다.

토정이 아산골에 전무후무한 걸인청을 세우려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1578년 5월 자기 영지(領地)인 아산골을 한바퀴 돌아본 뒤 뜻밖에도 거지가 매우 많은데 놀랬다. 거지뿐 만 아니라 늙고 병들어 벌이도 못한채 겨우 목숨만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렇다 전임 사또 윤춘수가 탐관오리였다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걸인청이다. 그러자 아전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그뿐이겠는가 그 잘난 양반들중 일부와 부자들이 이에 동조(同調)하였을 것이다. 그래 관아에 걸인청을 둔다는 것은 당시 의식(意識)수준으로 보아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그렇다면 아산시장이 아산시청에 거지수용소를 만든다면 공무원과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것 역시 궁금하다.

"사또! 거지새끼들을 모조리 쓸어다가 아산 골 밖으로 내쫓아 버리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 하는데 무슨 까닭에 걸인청을 만들어 우리 아산(牙山)을 거지 소굴로 만들려고 하십니까요?" 토정이 목청을 가다듬어 아전들을 꾸짖었다. "어허 고얀놈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수령(守令)의 본분(本分)이 아니더냐? 내가 걸인청을 세우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여 양민(良民)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집과 땅을 갖게 하여 잘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건물이 없다느니 재물이 없다느니 핑계를 대지만 건물은 세미(稅米)창고를 비워서 수리하면 될것이고 재물은 한해동안 먹여주면 자립(自立)할 방도(方道)가 마련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걸인청을 만든 토정은 관속(官屬)을 풀어 고을안의 거지들을 모두 잡아들여 수용하고 일을 시켰다. 노약자와 병자들은 짚신을 삼거나 새끼를 꼬는일 섬이나 곡식 가마니를 치는 일을 시켰다. 부녀자들은 바느질과 길쌈을 가르치고 젊고 튼튼한 거지들은 황무지(荒蕪地)를 개간 농사를 짓게 하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는 일과 배를 부리는 일을 가르쳤으며 자염(煮鹽) 즉 소금 굽는 일을 전문가 토정이 인주면 걸매리쯤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바다에 무진장있는 "작은 금덩어리"를 캐내어 걸인청 운영자금과 정착자금(定着資金)마련에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밖에 손재주가 있는자들은 도구를 마련해주고 수공업(手工業)에 종사하게 했으니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능력에 따라 배치 했다.

토정 역시 전무후무한 걸인청 신설때 6방 관속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소신껏 밀어 붙였다. 또한 그 때문에 아산 땅에서 시해(弑害:타살에 의한 죽임)당할 뻔도 하였다.
걸인청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걸인청 식구들의 식량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정은 육방관속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국유지(國有地)를 회수(回收)할 것이며 회수된 국유지는 걸인청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여 식량을 자급자족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현감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하인 놈이 토정 앞에 나타나 머리를 조아렸다.
“사또 어른” 하인은 몹시 격앙된 목소리로 “걸인청을 신설하는 것이 사실입니까요?” 하고 물었다.
“그래 걸인청을 설치키로 했다. 그런데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묻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면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둔전(屯田)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도 사실입니까요?”
여기서 둔전이란 개간하지 않은 땅을 서리(胥吏:품계도 없는 쫄따구니 관리), 군졸, 평민, 관노비에게 개간 경작케 하여 수확물의 일부를 관청경비 및 군량미로 쓰이는 토지를 말한다.
토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하인 놈은 “사또어른! 그래 나라에서 준 땅을 거지에게 준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요” 하고 말하는 것 이었다.
“어허, 당돌(幢突)하구나?”
토정의 얼굴이 어두어졌다. 그래도 하인은 “당돌한 것이 아닙니다요. 제가 지금까지 아홉 분의 현감을 모시고 있었읍니다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요. 아산골 돌아가는 사정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죠. 그리고 제가 둔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만약 모든 둔전을 다 거두어들인다 해도 제것만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사또어른!” 하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자.
토정이 “네가 나를 위협하는구나.” 하고 큰소리로 말한 후
“그래 나라에서 준 땅을 거지들에게 안 된다고 하는 네가 너만은 그런 땅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냐? 너야말로 도둑놈 심보로구나, 그리고 네가 아홉의 현감을 모셨는지 열명을 모셨는지 내 알 바가 아니지만 네 말의

뜻은 잘못 너를 건드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일갈(一喝)했다. 정말 하인 놈의 입에서 그따위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불쾌하기 이를 데 없고 괘씸한 것이었다. 그러니 너그러운 토정이지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인 놈은 그대로 배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비록 하인의 신분이면서도 역대 현감을 오래 보필했다는 데서 소위 텃세가 대단했던 것이다. 현감의 갖가지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이 늙은 하인이었다. 그래서 현감일망정 함부로 이 하인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어떤 현감은 하인의 비위를 맞추어 축재(蓄財)까지도 했다. 그리고 관속들이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현감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하인을 중개자(仲介者)로 하였다.
심지어 하급 아전들 사이에선 이 늙은 하인을 움직여 엽관(獵官)운동을 하기도 했고 관기(官妓)들도 이 하인에게 접근하여 현감의 사랑을 받고자 했다. 토정은 이런 내막을 잘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약점이 없고 재물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인을 무시해 버렸던 것이다. 이 늙은 하인은 그의 텃세와 관록(貫祿)과 신분을 초월한 자만심(自慢心)때문에 감히 토정에게 이래야 하느니 저래야 하느니 하고 시비를 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토정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네 이야기가 끝났으면 속히 물러가라!” 고 단호히 명령했다.
그러는 토정의 눈은 인자스럼에서 노기(怒氣) 같은 것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이 말에 하인은 어쩔수 없이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튿날 밤이었다. 토정이 잠을 자다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 토정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밖에 누가 있느냐?” 며 헛기침을 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어 토정은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그 순간 방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괴한(怪漢)이 방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네 이놈 어떤 놈이냐?”
토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괴한은 아무런 대꾸도 않고 쏜살같이 토정 쪽으로 와서 칼을 내리치는 것이었다.
“으악!”
괴한은 토정의 몸을 찔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리까지 질렀다.

그러나 자객(刺客)의 칼은 어느 결에 토정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자객이 칼을 찌르려는 순간 술수(術數)를 발휘하여 자객의 칼을 나꿔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토정의 무술 역시 보통은 아니었던 것이다.
칼을 빼앗은 토정은 재빨리 불을 밝힌 후 "이놈! 살고 싶으면 얼굴에 쓴 복면(腹面)을 벗어라!" 하고 호령했다. 자객은 기가 질려서 방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복면을 벗었다. "아니, 이건 석팔이가 아니냐?"
토정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객이 바로 어제 토정의 걸인청 설치 계획에 반대하여 항변하던 늙은 하인의 심복(心腹)으로 현감의 가마를 메는 교군(僑軍)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또 어른!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사또 어른을....."
석팔이는 엎드려 울었다.
"그래 네가 어찌하여 나의 목숨을 뺏으려 했느냐?" 괘심한 것 같으니 토정의 음성은 여전히 떨렸다.
그래도 석팔이가 흐느껴 울기만 하자 다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놈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원한을 품었더냐?" 하고 물었다.
"원한이라뇨? 인자하신 사또님께 누가 감히 원한을 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무서운 짓을 감행(敢行)하려 했느냐?"
"사또님!"
"그래 어서 말해라"
"예, 김노인이 사또님을 살해하면 땅 열마지기를 주겠다기에 그만 어리석은 이놈이....." 석팔이는 드디어 통곡소리를 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토정은 빼앗은 칼을 교군(轎軍) 석팔이 앞에 던지며 "지금이라도 찌르거라, 그렇잖으면 울음을 거두고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다.
"그러면 저를 용서하신단 말씀이옵니까요?"
"그래, 용서하는 것이다. 너 뿐만 아니라 너를 이곳에 보낸 놈도 용서해 줄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 칼도 그 놈에게 갖다 주고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
"사또님 이 은혜 죽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
"다시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되느니라 어서 물러가거라. 오래 이야

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이 여겨 눈치를 채게 될까 두렵구나”
토정의 넓은 마음에 석팔이는 다시 한번 감복(感服)하여 꾸벅꾸벅 절을 하며 돌아갔다.
“불쌍한 인간이로구나”
토정은 돌아가는 석팔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악몽(惡夢)같은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았다. 토정은 관속들을 모아 직접현장 창고에 가사 내부를 정리하고 수선하여 여러개의 방을 꾸미도록 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토정은 꼼짝않고 현장감독을 했다. 누구하나 감히 작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사가 끝나자 토정은 자신이 “걸인청(乞人廳)” 이라는 현판을 써서 붙이고 걸인들을 수용했다.
하루는 걸인청을 순시하다가 모두들 열심히 짚신을 삼고 새끼를 꼬는 등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두놈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찌하여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놈들만 자고 있느냐?” 고 토정이 물었다. 그러자 한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킬 뿐 언제나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토정은 잠에 떨어진 놈들을 깨우도록 한 후 “네 놈들은 어디서 온 놈들이냐?” 고 물었다.
“예, 저 아래 다리 밑에서 살다 왔습니다요.”
“그렇다면.....,”
토정의 음성이 갑자기 노기를 띠었다.
“다리 밑이라면 내가 잘 안다. 이제 보니 네놈들이 다리밑 신세만 지고 살아간 것이 그 게으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위해 애를 쓰는데도 게으름만 피우니 괘씸하구나” 화가 난 토정은
“여봐라 장령(나졸들의 우두머리)! 이놈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병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퍼질까 두렵구나 그러니 당장 아산골 밖으로 내 쫓아버려라!” 하고 명령했다.
이렇게 되자 걸인청을 쫓겨나게 된 두놈은 토정에게 용서를 빌며 더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또 어른! 이번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러자 토정은 “무엇들 하는 거냐? 이놈들을 쫓아 내라는 영(令)이 떨어진지 오래거늘! 가난의 제일 큰 원수(怨讎)는 게으름이니라,” 고 추상(秋

霜)같은 명령을 내렸다.
인자(仁慈)하기만 한 토정에게 저런 비정(非情)한 면이 있었던가 싶었다.
이렇게 되자 나졸들은 이들 두놈을 강제로 걸인청에서 끌어내 멀리 쫓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걸인청 백성들은 전보다 훨씬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으며 토정의 단호한 결단을 다시 우러러 보게 되었다.

조선시대 아산현 관아의 복원과 활용 방안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김 회 정

김일환 교수님의 발제와 황원갑기자님, 이규영선생님, 박노숙선생님의 토론문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통건축과 역사도시적 관점으로 문화유산의 복원방안을 연구하고 계획하는 입장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산현 복원에 매우 중대하게 사용될 자료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하게 발제문에 대한 질의 및 토의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 제가 가진 의견을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순서로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전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제문을 받고 검토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과 대상을 조선시대 아산현 읍치로 제한하였습니다. 둘째는 '관아' 또는 '읍치'의 개념을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 또는 정의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조선시대 '관아(또는 읍치)'에 관한 이해와 아산현

1) 조선시대 지방통치와 '읍치'

조선은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전국을 8개의 도(道, 관찰사를 파견)로 나누고, 각도에는 감영을 설치하였다. 도를 다시 여러 개의 고을(邑) 즉, 부(府), 목(牧), 군(郡), 현(縣)으로 나누고 이곳에 수령(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의 통칭)을 파견하여 국왕을 대신하여 지역을 다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의 통치체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군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전국을 약 330여 개의 고을(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각각의 고을에는 행정관청 즉 관아를 건립했던 곳을 설

치하고 ‘읍치’라고 불렀습니다. 읍치는 필요에 따라 둘레에 성벽을 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의 우리는‘읍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한 표현은 ‘유성읍치’라고 부르는 것이 개념이해에 맞는 표현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아산은 ‘무성읍치’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아’라는 말은 ‘관서’, ‘공해’라는 말로도 부르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관원들이 정무를 보던 건물(한국민족문화대백과)’로 정의합니다. 동헌, 객사, 향청, 작청 등의 건물을 통칭하는 말로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관아’라는 단어를 관아가 있었던 곳 전체를 염두해 두고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관아가 설치된 도시인 ‘읍치’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인 것 같다.

이러한 개념의 이해와 공유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산현 관아의 복원 방안’을 구상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아건물(걸인청을 포함한) 일부를 복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아산현 읍치(도시적 개념)를 복원하여 활용할 것인가는 사업의 규모는 물론 초기 방향설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 조선시대 아산현, 그리고 이지함과 걸인청

조선시대의 지방통치체제에서 아산현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산현은 이러한 조선시대 충청도(공주감영)에 대부분 소속되었으며, 현감(종6품-여지도서)이 파견되던 곳입니다. 행정위계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부(부사, 정3품), 목(목사, 정3품, 약20여개소), 군(군수, 종4품, 80여개소), 현(현감, 종5품 약34개소/현령, 종6품 약 140여개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지도서를 근거로 볼 때 아산현은 하위그룹에 해당하는 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종5품 현감이 파견된 고을이었다. 전국의 여러 고을 중에서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읍호승강제가 적용되어 읍호가 중앙의 조정으로부터 자주 조정되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었던 점에서 아산현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때 행정(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주요한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부족(모든 지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웬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음)하며, 이를 근거로 관아의 복원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역이 지정학적(또는 지리적)으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에 대한 가치 판단은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복원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해 보이는 아산현 관아의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일명 '킬러콘텐츠'의 확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그 '킬러콘텐츠'가 '이지함과 걸인청' 정도로 생각됩니다. 걸인청을 진정한 '킬러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걸인청'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온전히 밝히는 것이 먼저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소 이러한 점에서도 1차 사료를 통해서 무언가 입증하기에는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2차 사료(일종의 야사를 포함한)로 분류되는 부분에서는 풍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토정선생과 걸인청 관련 기록은 아쉽게도 1차 사료가 아닌 2차 사료로 분류되는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복원한다는 논리는 사실성과 원형을 중시하는 역사분야에서 생각보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지함이라는 인물이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른바 대표적인 '기인'으로 여겨지면서 더욱 그러한 2차 사료들이 생산과 재생산이 거듭되면서 생긴 일종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요즘 여건을 비춰 본다면, 이지함과 걸인청은 2차 사료이긴 하지만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고, 2차 사료(다르게 이야기하면 야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하기에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면 다른 지역과 구별되면서 경쟁력을 가지는 현대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 속 인물에 관한 다양한 야사들을 근거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컨텐츠화해서 활용하는 방향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Ⅱ. 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복원은 온전히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고, 활용은 일종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온전한 역사적 고증과 원형복원으로 보존에 방점을 찍었던 학계와 NGO측 입장, 사유재산의 침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이었던 지역주민, 양쪽을 중재해야 하지만 어느 쪽으로 편을 들 수 없었던 지자체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논쟁을 넘어 분쟁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의 시작과 함께 "문화융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활용이 보존이다'라는 개념이 우세한 것이 요즘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점이 아산현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요즘의 활용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보다 더 자주, 다양하게 사용하자는 입장이지, 현재 우리와 같이 복원해서 활용하자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원자체가 매우 어렵고 신중해야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복원이 가져오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지대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이 활성화되는 성공사례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 또한 많이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역사적 장소를 지닌 지역 전체를 재조명하고 복원

할 것인가? 단순히 관아건물 몇 채를 복원해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건축물의 복원과는 별개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할 것인가? 등의 여러 방안에서 고민과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며, 참여자들 모두가 함께 나눈 담론을 근거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차근 차근 준비해나가야 하는 매우 지루하고도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Ⅲ. 아산현 관아의 복원을 위한 준비사항 또는 건의사항

문화유산의 복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항으로 더없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복원은 무엇보다 역사적 명분이 분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재원확보가 함께 이뤄져야하고, 요즘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 복원사업의 경우 일반 건축공사와는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부터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협의체 구성 및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교육 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관에서 민간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던 예전에는 사업비확보가 최우선이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먼저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아산현 관아(읍치) 복원 추진협의회(가칭)”를 주민중심으로 구성하고, 정치권과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자간 합의점을 이끌어낼 중심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복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대다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전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지함 복지대상 제정’, 분위기 조성과 홍보

아산현 복원사업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대외적 분위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걸인청’이 가진 역사적 가치는 분명 ‘복지’입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곧 복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지함 복지대상’을 제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매년 걸인청이 설치된 날과 같은 특정일을 지정하여,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민간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분야에서 그해 가장 주목받은 사람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하거나, 이지함 선생과 같이 정치인 또는 관의 수장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걸인청의 역사성을 기념하고, 지역에서는 축제로 즐기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걸인청 복원의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의 마련은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초기에는 굳이 많은 비용을 상금으로 제공하기보다 역사성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점차 지역기업과 민간기부를 유도하여 상징성과 명예에 초점을 맞춘 상으로 순수성을 온전히 유지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역사적 명분확보를 위한 원형고증 학술연구 필요

문화유산의 복원의 필요성을 찾을 때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아산현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행정위계상 전국의 330여개 고을 중 특별할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킬러컨텐츠로서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컨텐츠가 아직 역사성을 확고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산현 관아(읍치)의 원형고증과 함께 걸인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살피신 사료를 분석해 보면 걸인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고증에는 다소 아쉽지만 몇 가지 확인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추후 문헌조사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추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문헌의 기록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헌조사를 통한 역사적 고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고고학적 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산현 읍치의 고고학적 조사는 우선 확인 가능한 대상부터 시험발굴(시굴조사)하여 아산현 읍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보하여, 그 결과를 문헌심화연구와 마스터플랜수립 등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장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 필요

고증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증연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상, 성격상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스터플랜은 문화재종합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복원사업의 재원확보는 물론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산현 읍치지로 확인되는 영역의 사유지 토지매입과 영인초등학교에 대한 논의는 마스터 플랜 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는 사전에 검토되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발제문에 대한 토론 사항

발제자께서 제공해 주신 원고를 중심으로 향후 복원사업 추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만한 사항들만 몇 가지 정리하여 질의 겸 토론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원하게 된다면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실제로 기존의 많은 복원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중 하나가 바로 이 ‘복원기준시기의 문제’ 입니다. 심도있는 학술연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설정해야겠지만, 발제자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생각하신 복원의 시기(시점)는 언제이고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1. 걸인청이 설치되어 활용되던 시기 2. 조선후기(1872년 즈음-복원 근거자료가 가장 많은 시기) 등

두 번째, ‘아주’와 ‘영인’의 지명유래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서산 해미읍성의 경우 枳城(지성)’이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풀어보시면 ‘탱자나무성’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해미읍성에는 성벽 바깥쪽에 탱자나무(가시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매우 특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해미읍성 내에 위치한 객사의 당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枳城館(지성관)’입니다. 현재는 서문의 문루를 ‘枳城樓(지성루)’라고 지칭하며 현판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곳 아산현의 옛 이름, 특히, ‘아주’와 ‘영인’에도 처음 명명될 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곳 이지역의 특성을 읽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복원사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아산현의 본래 관아지 입지와 이건에 관한 사항

아산현 관아의 본래자리(현 영인면 성내리 지역)에서 이건하였다는 신정아주지의 기록을 근거로 이전의 주요 이유를 조수의 침습으로 짐작하셨습니다. 정확한 관아지를 확인하지 못한 필자가 단순한 논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조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조수로 인해 관아지가 침수되거나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아지보다 조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관아지를 이건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해발고도상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지도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상하게도 두 지역은 대체적으로 10m내외의 차이밖에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역전된 형국이 확인되었습니다(현 영인초등학교 해발 10~20m 사이에 위치 / 영인면 성내리 안골 해발 30~40m 사이에 위치). 물론 정확한 옛 관아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그다지 조수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 관아를 옮겼다고 추측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과 연결시킬만한 토정선생과 연결된 스토리나 풍수지와 연결된 다른 스토리가 혹시 있으신지 또는 생각하고 계셨던 다른 이야기 거리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아 내 건축물들의 당호에 관한 사항

읍치를 건축적 관점에서 연구하다 보면 읍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건축물들이 있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건축물 중 몇몇은 당호가 지리지를 중심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사와 동헌, 내아 그리고 누각의 당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아는 건축물과 공간구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삼문삼조의 구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문은 객사이든 동헌이든 중심건물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통과해서 해당 건물에 이르도록 구성하며, 또한 관아의 전체 공간구성은 기능에 따라 외조, 치조, 연조의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주례에 기록된 내용과 한성에 적용된 내용을 비교하여 지방관아를 해석하는 몇몇 논문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민루는 삼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1872년 지방지도 아산현 지도에 표기된 동헌 출입문 중 외삼문에 해당하는 누문표기는 여민루를 그린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헌과 여민루 등 관아 내 건축물들의 이력을 기록을 근거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는 도표로 그려보면 더욱 분명하게 건축물의 존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듯합니다.

원고에 제시하신 '~~아문'이 일반적인 문루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리지나 다른 기록들에서는 관아의 정문으로 '~~아문'이라는 명칭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다른 문화권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우리의 경우도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당호를 편액으로 거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렇습니다.

사족을 좀 붙이자면, 실제 우리 지리지를 살펴보면 기록이 다소 들쑥날쑥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지역은 매우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생각만큼 상세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들을 종종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의 다른 기록들을 살피고, 다른 시기의 같은 류의 기록을 살펴 교차분석하는 방식으로 추론해 나가는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원고에 삽입하신 그림(삽화)의 원문에 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료이고, 자료의 성격을 어떠하고,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함께 볼만한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세 곶창과의 복원과 연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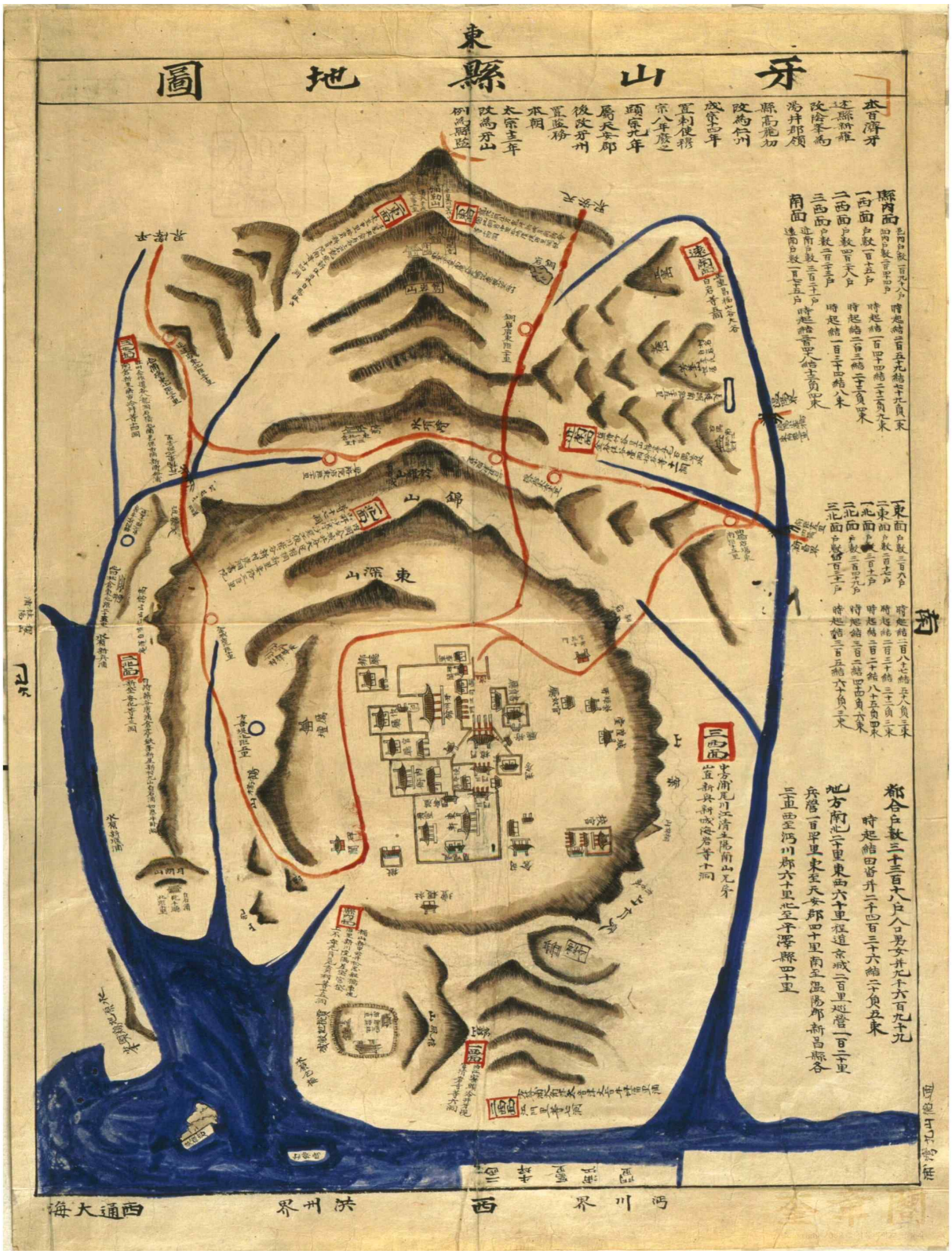
공세 곶창지는 아산에서 활용할 만한 매우 좋은 조선시대 유적지임은 분명합니다. 공세 곶창성은 일부 잔존성벽이 확인되어 기록조사도 진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공세 곶창지에는 천주교 성당이 자리잡고 있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최근에는 교황의 한국방문과 함께 대중에 매우 잘 알려진 성당입니다. 다시 말해 복원을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조선시대 수운을 통해 삼남의 조세를 수취하던 당시의 매우 중요한 유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철도와 신작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은 물론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운이 쇠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되고, 어찌되었던 천주교 성당과 사제관이 들어섰고, 현재는 근대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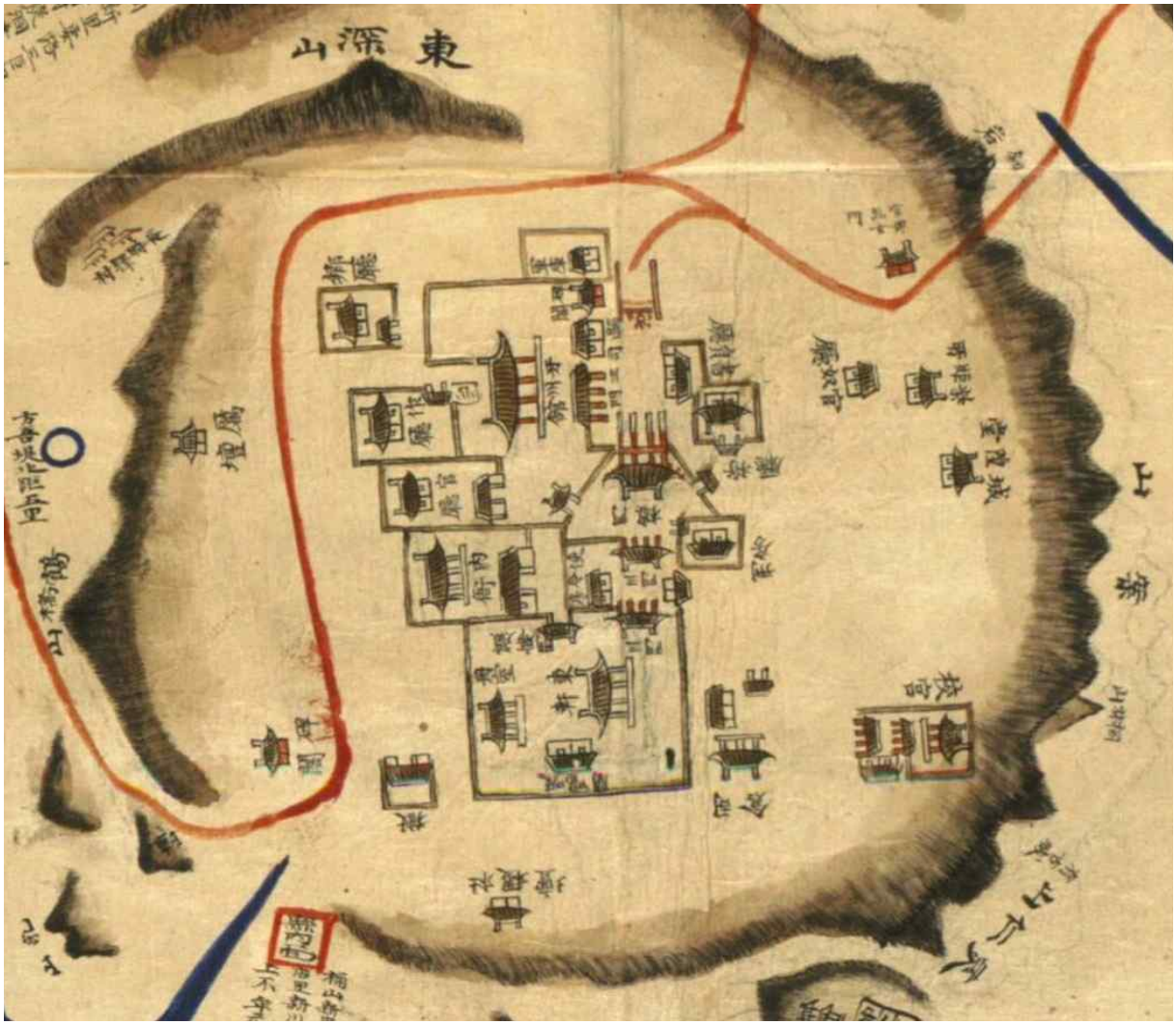
결코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어디 한 시점에 맞춰 복원한다는 것은 소중한 다른 한 시점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원 가치판단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근대시기를 거치면서 국유지였던 곶창성지가 천주교측 소유가 된 경유나 흐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추가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고에서 제시하신 아산현 관아문제를 공세 곶창복원과 연계할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의 연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록자료 : 아산현 복원 기초자료



[그림 1] 1872년 지방지도 아산현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그림 2] 1872년 지방지도 아산현지도 읍치부분 확대(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아산현 읍치지 내 공해시설 및 주변시설, 지명표기

○ 아주관(객사), 삼문, 군고, 홍살, 비각, 현사,

○ 동헌, 책실, 급창방, (내)삼문, (외)삼문, 사령방, 누문(여민루), 내아, 염석문(중문)

○ 작청, 형방, 장청, 관노청, 관청, 서원청, 시구소(柴矩所)

○ 향청, 옥, 사창

○ 여단, 사직단, 성황당, 교궁(향교), 관비열녀문, 비각

○ 동심산, 영인산, 안산, 동림산, 검암,금산

○ 장시역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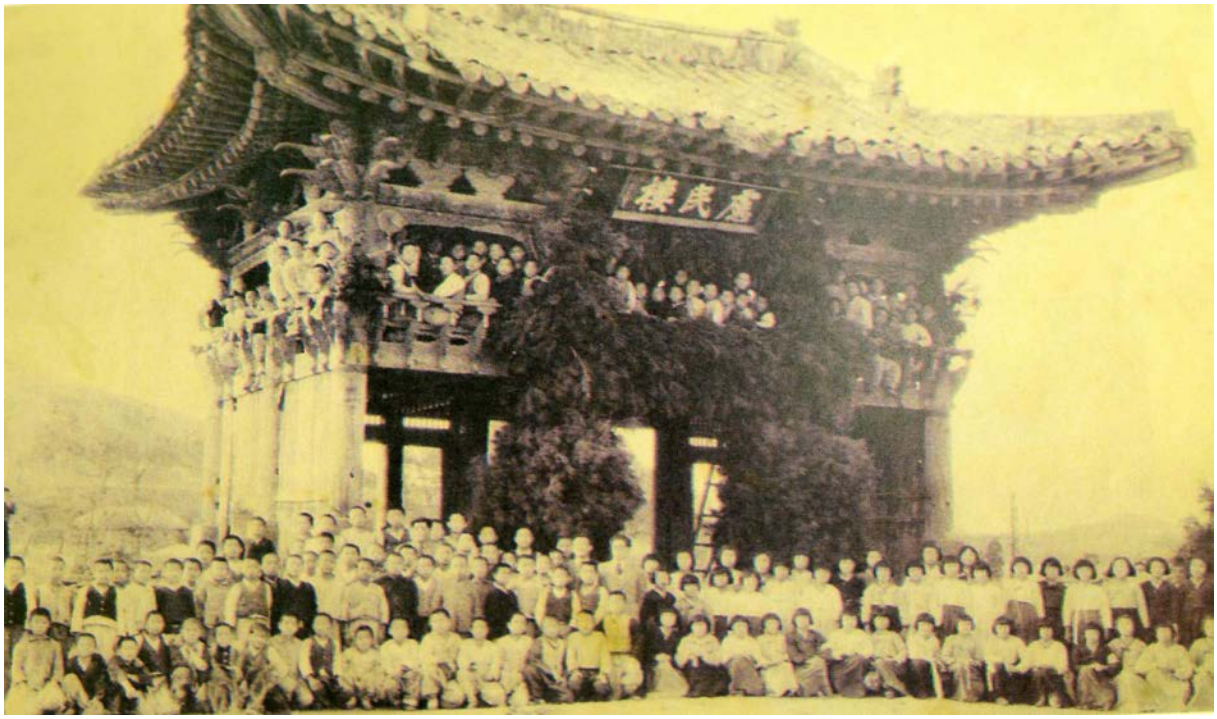
[그림 3] 일제강점기 아산현 객사(아주관) 전경(1911년 이후의 모습)

※ 사진출처 : 영인초등학교 100년사

- 일반적으로 객사의 전면에는 월대를 설치하였거나, 정면중앙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윗 사진에서는 그렇지 못함. 1872년 지방지도에 표현된 건물의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큼.
- 은행나무가 현존하고 있어 객사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는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단부까지 모두 해체된 상태로 추정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기단하부 지정유구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음.
- 사진이 지붕처마높이 이상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됨.(건물의 2층높이 정도, 여민루)

[그림 4] 아산현 읍치 주변 지표유물(석재-장대석 추정/2016년 10월 이창호사진)

- 관아건축의 기단부에 사용되었던(윗사진 기단과 비교) 부재들로 추정됨. 학교주변 민가들에서 많은 양의 석부재들이 지표상에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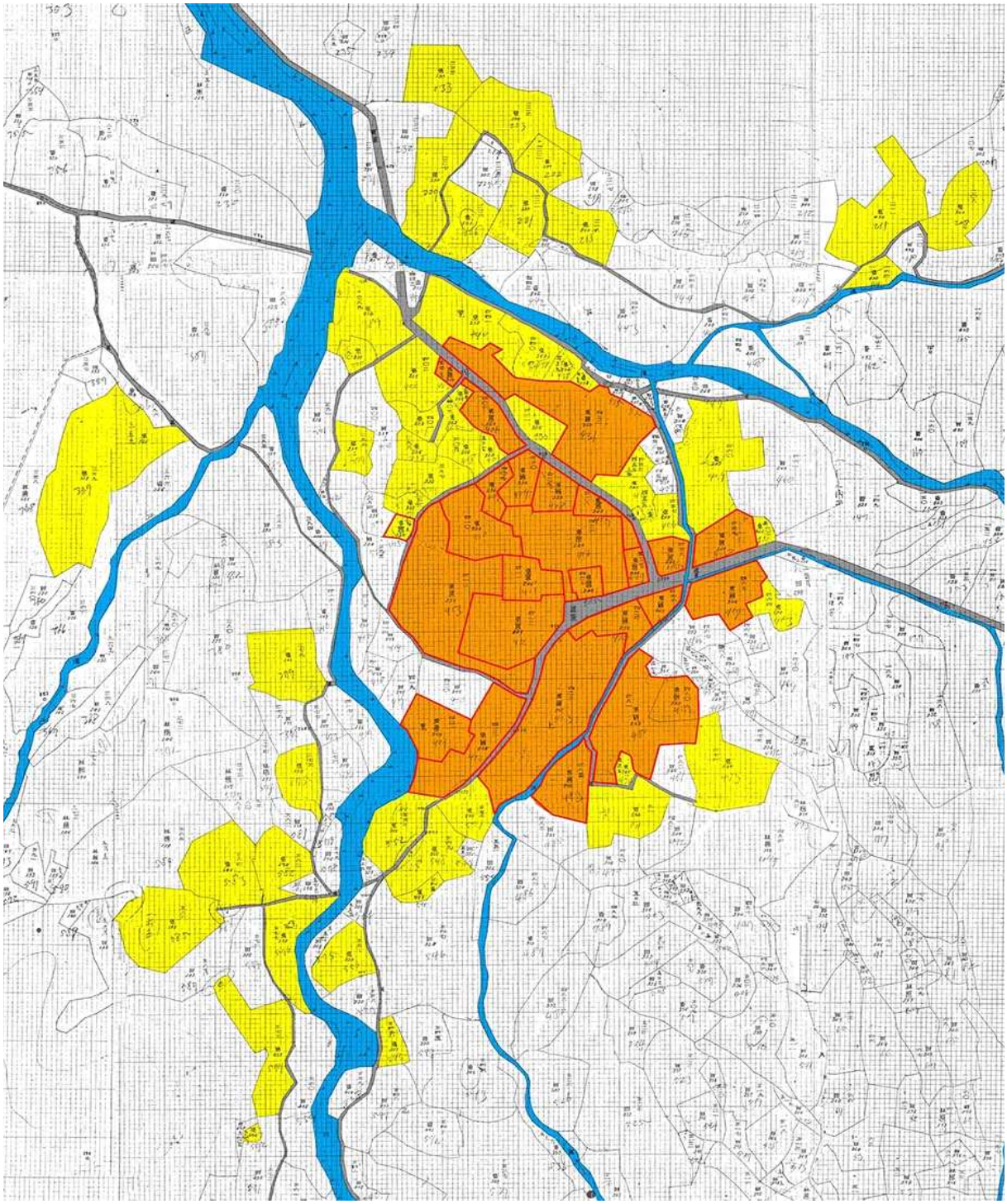
[그림 5] 1947년경의 여민루 전경(영인초등학교 36회 사진)

※ 사진출처 : 영인초등학교 100년사

[그림 6] 2016년 10월 여민루 전경

※ 사진촬영 : 김회정

- 현재 영인초등학교 교사동이 1947년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그림 7] 일제강점기 제작 지적원도(영인초등학교 지역,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범례 : 대지(사유지) 대지(국유지) 수계(천, 구) 잡종지(시장) 도로 성벽 국유지)

※ 자료출처 : 김회정, 조선후기 홍주목 읍치의 도시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그림 8] 근세 한국 오만분지일지형도 - 아산지도 부분
※ 조선총독부에서 대정8년(1919년)에 인쇄발행한 지도임.(경인문화사에서 영인본 제작)

[그림 9] 아산현 복원(추정) 모형(영인면사무소 소장/2016년 10월 필자촬영)

[그림 10] 아산리 비석군 전경(영인면사무소 경내 소재/2016년 10월 필자촬영)

아산현 관아 복원 방안

온양신문 대표 **신 홍 철**

MEMO

MEMO

MEMO

MEMO